



#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姜 敏 秀

編輯人：李 宰 律

(住所)：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우) 156-808, (電話)：02-823-1091, 810-6792 (FAX)：02-823-1092, E-Mail：airfa04@hanmir.com HOME PAGE：www.afa.ac.kr

## 離任辭

尊敬하는 先輩님, 親愛하는 同門 여러분, 지난 1年間 總同窓會長職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9次年度 總同窓會의 運營을 責任 맡게 된 저와 9期士官 全員은 會員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會員 상호간의 親睦圖謀, 相扶相助의 확대, 그리고 母軍과 母校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同窓會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渾身の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協助와 支援, 그리고 따뜻한 격려에 대하여 심심한 謝辭를 표하는 바입니다.

總同窓會가 名實공히 설립취지에 맞는 役割과 機能을 원만히 遂行해 나가기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會員의 基金의 擴充 문제입니다. 우리 동창회의 특성상 회원 대다수가 現役身分이며, 동창회의 활동에 對하여 個別的인 參與가 제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예비역 회원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비역 회원의 적극적인 參與 與否가 동창회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비역 신분이 大部分인 各期生별 會員구성(회비 납부자)을 살펴 볼 때 總同窓會에 對한 期生別 관심도, 구체적으로는 각 기생별 회장 및 총무의 役割에 대한 회원 구성비율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기생별 관심도 여하가 동창회의 발전에 직결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會員의 參與 增大는 자동적으로 同窓會의 基金 擴充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總同窓會에 대한 同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會員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동창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통



해 많은 同門들이 동창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나아가 매우 冷笑的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私見으로서 總동창회가 모든 회원들로부터 信賴를 받을 수 있는 동창회가 되려면, 첫째, 同門 各 개인이 예편 후 필요로 하는 동창회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협조받을 수 있으며, 둘째, 각 기생별 활동들을 적극 지원 및 협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理想的인 목표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예편한 同門들에게 취업 알선 및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동창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창회가 회원의 名譽, 位相, 權益에 대한 저해 및 침해 사항에 대하여 각 회원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확고한 立場을 堅持하고 또한 表明하게 될 때 우리 동창회는 모든 同門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同窓會로 發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總同窓會를 훌륭하고 있는 同門들의 지휘를 갖춘 김홍래 신임회장에 引繼하게 된 것을 매우 다들스럽게 생각하며, 신임회장과 더불어 各別한 전우애로 일치 단합된 10期士官이 總동창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매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1년간 동창회의 期的 發展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저와 9期士官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선배님, 그리고 후배,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平安, 그리고 모든 일 亨通 하심을 祈願드립니다.

2002年 6月 30日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離任會長 姜 敏 秀

## 就任辭

친애하는 空士總同窓會 會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本人이 空士總同窓會 會長으로 취임하면서 會員 여러분에게 敬중한 人事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先輩님들과 同僚, 그리고 사랑하는 後輩 여러분들을 보다 가까이서 만나 볼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앞으로 1년간 空士總同窓會를 맡아 운영해 나갈 責任을 10期士官이 擔當하게 됐음을 本人은 물론 10期士官 전원은 매우 뜻 깊고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空軍士官學校가 문을 연 지 어언 半世紀 이상의 年輪을 쌓으면서 7500餘 會員을 배출하였습니다. 초창기 先輩들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最近에는 孫子, 孫女들이 任官 배출되고 있어 세대의 흐름과 時代相의 變化에 대한 無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國家安保狀況은 전혀 變化되지 않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장광한 실명을 붙일 것도 없이 최근 北韓海軍의 西海挑發事件을 봐도 安保現實의 實相을 立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會員 모두는 國家領空防衛의 첨병이요, 役軍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사피 士官學校 同窓會는 一般社會 餘他學校 同窓會와는 아주 다른 特性이 있습니다. 現役과 豫備役이 共存하면서 現役 時節에는 같은 制服을 입고 조국영공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헌신했다는 點이며 이것이 우리 同窓會를 운영해 나가는 데 긍정적이면서 큰 長點이라 생각합니다.

空士總同窓會가 指向해야 할 점은 會員 누구나 空士를 졸업했다는 會員으로서의 긍지와 自負心을 갖게 하고 會員들에게 可視的이고 實質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활동을 展開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本人은 總동창회를 운영함에 있어 첫째, 現역 예비역 회원간의 親睦 交流와 加교역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영공방위 임무를 담당하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둘째, 現역 各 期生別 同窓會가 비교적 完備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總동창회 活性化로 연결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會員들의 權益保護와 신장에도 관심을 기울여 會員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전개해 보겠습니다(예, 예비역 회원들의 직업보도, 예비역의 연금별 개칭 등).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總同窓會 迎營期數인 10期士官 모두는 힘을 합쳐 모으고, 중지를 쫓아 여러 先輩님들이 이룩해 놓은 輝煌한 業績과 傳統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현시

## 차 례

총동창회 소식(2~7면)  
· 정기총회 결과  
· 47사관 길고 50주년 행사  
· 20기사관 임관 30주년 행사

모교소식(8~9면)  
· 참모총장 이·취임식  
· 적전사령관 취임식

모교소식(10~11면)  
· 사관학교 교장 취임식  
· 제50기 졸업 및 임관  
· 항공 상성 조형물 제막식

회원기고(12~17면)  
· 어느 전투조종사의 이야기 (이배선)  
· 빨간 마후리의 훈(이영순)

회비 및 찬조금(18~19면)  
·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대에 부응하는 總동창회의 機能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全 會員들의 다양한 意見을 수렴받은 물론 아낌없는 指導와 協助가 있어야만 훌륭한 總동창회 운영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總同窓會를 擔當 迎營해주신 姜敏秀 會長님을 비롯해서 9期士官 先輩 會員들의 勞苦에 대해 衷心으로 감사드리며, 會員 여러분의 끊임없는 贊助과 指導를 부탁드립니다.

2002年 7月 1日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新任會長 金 鴻 來 拜

## 祝

## 總同窓會 會長團 (10次年度)

## 賀

會 長：金鴻來  
副 會 長：宋重鎬, 李達華, 韓政福  
監 事：李憲宰, 林承玉  
事務總長：金泰錫  
後 援：10期士官 一同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 空士總同窓會消息

## 定期總會 結果

9차년도 정기총회를 2002년 6월 21일 16시에 용산에 있는 웨딩타운 하나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會員現況

- 임관인원 : 7,407명
- 현재인원 : 6,789명

### 2. 主要業務

| 日 字         | 業 務 內 容  | 備 考                               |
|-------------|--|-----------------------------------|
| 2001. 7. 2. | • 보라매회장 禮訪   | 新任 會長團                            |
| 7. 2.       | • 新舊 同窓會 任員 午餐   | 8, 9次 同窓會 任員                      |
| 7. 2.       | • 同窓會 會長團 會議   | 理事會 日時 및 事業計劃 審議                  |
| 7.11.       | • 會長 就任人事 및 公知事項 配布  | 全 會員                              |
| 7.20.       | • 空軍本部 訪問(總同窓會 會長團)  | 參謀總長 禮訪                           |
| 7.20.       | • 空士 訪問(總同窓會 會長團)  | 校長 禮訪                             |
| 7.24.       | • 理事會 開催<br>會務 報告<br>議案 議決<br>- 基金造成(案)<br>- 事業計劃(案)<br>- 戰略研究所 支援(案)        | 1~29期(理事)                         |
| 7.27.       | • 理事會 結果 發送  | 1~49期(任員)                         |
| 7.30.       | • 大韓航空 同窓會長 一行 來訪 懇談會  |                                   |
| 8.17.       | • 8次 總同窓會長團 招請午餐   |                                   |
| 8.31.       | • 3士체전 激勵行事<br>• 全期生 任員會議(1~49기)   | 場所 : 空士<br>代表選手 全員參席<br>全期生 任員 參席 |
| 10. 8.      | • 陸·海·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長團 모임   | 3士同窓會 會長團                         |
| 10. 1.~2.   | • 3期 士官 入校 50周年 記念行事 支援  |                                   |
| 11. 2.      | • 福祉團 輸送中隊 激勵  |                                   |
| 10. 1.~13.  | • 會報23號 發刊 配布(3,300부)  |                                   |
| 11. 6.      | • 作戰司令部 訪問   | 會長團                               |
| 12.21.      | • 會報 24號 製作依頼  | 교재창                               |
| 12.26.      | • 空軍달력 發送(各 期生 任員)   | 100부                              |
| 2002. 1.10. | • 總同窓會 任員 會議<br>9次年度 前半期 業務分析 會議   | 運營 期數 任員<br>(9期)                  |
| 1.14.       | • 福祉團長(參謀) 招請 午餐   | 總同窓會 任員                           |
| 1.18.       | • 空軍 新年 交禮會 參席   | 總同窓會 任員                           |
| 1.22.       | • 10戰飛團 激勵訪問   | 總同窓會 任員                           |
| 1.23.       | • 會報 24號 發刊 配布(3,300부)   |                                   |
| 1.25.       | • 空軍士官候補將校會 總會參席(2002年度)   | 花環 寄贈                             |
| 2. 5.       | • 空軍戰功傷會 事務室 開所式 參席  | 花環 寄贈                             |
| 2. 8.       | • 보라매會長團 招請 午餐   | 總同窓會 會長團                          |
| 3. 2.       | • 參謀總長 離就任 參席  | 總同窓會 會長團                          |
| 3. 4.       | • 總同窓會 法人登錄  | 國稅廳                               |
| 3. 5.       | • 50期 卒業生 懇談會  | 總同窓會長                             |
| 3.12.       | • 空士 50期 卒業式 參席<br>(總同窓會賞 授與)  | 總同窓會 任員                           |
| 3.13.       | • 總同窓會 지로 變更   | 조흥→한빛은행                           |
| 3.14.       | • 6戰隊 헬기사고 弔儀  | 弔儀金                               |
| 3.23.       | • 空士校長 招請行事 參加   | 運營期數 任員                           |
| 3.29.       | • 空士校長 Computer 1대 寄贈  | Printer 包含                        |
| 4. 8.       | • 보라매 新任會長 祝賀人事(金相泰, 2期)   | 總同窓會 會長團                          |
| 5. 4.       | • 4期士官 入校 50周年 記念行事 支援   |                                   |
| 5. 9.       | • 20戰飛 激勵訪問  | 運營期數 全員                           |
| 5.30.       | • 新任 福祉團長 來訪   | 대령 이강무                            |
| 6.21.       | • 定期總會   |                                   |
| 6.25.       | • 會報 25號 編輯 完了(3,500부 배포계획)  | 7월 중 배포                           |
| 7. 1.       | • 總同窓會 業務 引受引繼(基金 包含)  |                                   |
| 年中          | • 會員證 發給<br>• 會員管理 및 會員團 連絡業務<br>• 全期生 任員에 대한 協助公文 發送(3回)<br>• 運營期數 任員會議(6回) |                                   |

### 3. 基金現況

#### 가. 年度別 現況

| 年 度  | 積 立 金      | 積 立 累 計     |
|------|------------|-------------|
| 1次年度 | 992,000    | 992,000     |
| 2次年度 | 21,300,000 | 22,294,000  |
| 3次年度 | 11,900,000 | 34,194,000  |
| 4次年度 | 23,110,000 | 57,307,000  |
| 5次年度 | 36,260,000 | 93,567,290  |
| 6次年度 | 39,160,000 | 132,723,364 |
| 7次年度 | 67,480,000 | 200,200,000 |
| 8次年度 | 39,800,000 | 240,000,000 |
| 9次年度 | 44,800,000 | 284,800,000 |

#### 나. 基金增殖 現況

|   | 內 容    | 金 額         | 備 考            |
|---|--------|-------------|----------------|
| 1 | 基金引受   | 240,000,000 | 8次年度           |
| 2 | 平生會費   | 16,200,000  | 162名           |
| 3 | 利子     | 12,024,000  | 基金 貯蓄(2.4%) 利子 |
| 4 | 運營金 殘額 | 16,576,000  |                |
|   | 計      | 284,800,000 | 44,800,000 增殖  |

#### 다. 運營金 現況

|   | 內 容        | 計 劃        | 實 積        | 備 考          |
|---|------------|------------|------------|--------------|
| 1 | 9期士官 贊助    | 30,000,000 | 35,000,000 | 9期士官 全會員 募金  |
| 2 | 期別 分擔金     | 15,400,000 | 20,100,000 | 2~29期(理事 期數) |
| 3 | 贊助(會員, 一般) | 3,000,000  | 4,800,000  |              |
| 4 | 廣告         | 3,000,000  | 4,186,247  |              |
| 5 | 利子         |            | 214,824    | 一般預金(한빛, 조흥) |
| 6 | 移越 運營金     | 570,551    | 570,551    | 8次年度 移越金     |
|   | 計          | 51,970,551 | 64,871,622 |              |

#### 라. 運營金 執行現況

|    | 內 容              | 計 劃        | 執 行        | 備 考  |
|----|------------------|------------|------------|--|
| 1  | 定期總會(9次)         | 3,000,000  | 2,908,040  |  |
| 2  | 就任人事狀 配布         |            | 341,710    | 郵便料  |
| 3  | 理事會              | 1,500,000  | 1,379,750  |  |
| 4  | 會報發刊             | 4,800,000  | 2,473,590  | 2回   |
| 5  | 總同窓會 賞           | 500,000    | 342,000    | 50期 卒業(1명)                                 |
| 6  | 배지 製作            | 500,000    | 950,000    | 1,000個                                     |
| 7  | 3士체전 支援 및 任員會    | 3,000,000  | 3,255,870  | 母校<br>1期~50期 會長團                           |
| 8  | 部隊訪問             | 1,700,000  | 2,167,060  | 空本, 空士, 作司,<br>2個 飛行團 등                    |
| 9  | 空士 激勵訪問          |            | 1,150,000  | 運營期數 理事                                    |
| 10 | 期生 任員 및 運營 期數理事會 | 3,500,000  | 1,991,560  |  |
| 11 | 弔問               | 1,000,000  | 501,500    | 10명 弔花                                     |
| 12 | 運營費              | 6,000,000  | 4,083,341  | 事務室 運營                                     |
| 13 | 지로 手數料           |            | 19,950     | 105個(會費)                                   |
| 14 | 豫備費              | 5,000,000  | 3,750,000  | 航空宇宙戰略研究所<br>關聯團體贊助(보라매회,<br>사후장교회, 참전회 등) |
| 15 | 人件費              | 20,400,000 | 21,130,000 | 2名   |
|    | 計                | 50,900,000 | 46,444,371 | 差額 4,455,629원                              |

4. 上程案件 議決

가. 9次年度 豫算

- 引受基金 : 240,000,000원
- 基金增殖 : 44,800,000원
- 總基金 : 284,800,000원
- \* 運營金 移越(10次年度) : 1,851,251원

나. 理事 期數

- 10次年度 理事期數 : 1~30期
- (9次年度 理事期數 1~29期)
- 10次年度 理事陣

2002. 7. 1. 기준

| 期數 | 會長               | 總務               |
|----|------------------|------------------|
| 1  | 최규순              | 최규순              |
| 2  | 유수호              | 오호석              |
| 3  | 김종훈              | 정규혁              |
| 4  | 박병순              |                  |
| 5  | 최흥선              | 이병직              |
| 6  | 조영철              | 강용수              |
| 7  | 오학수              | 박만엽              |
| 8  | 김상록              | 백삼희              |
| 9  | 최일영              | 이기봉              |
| 10 | 이달화              | 이현재              |
| 11 | 임지호              | 이승오              |
| 12 | 김영식              | 김영웅              |
| 13 | 조건환              | 이병길              |
| 14 | 이역수              | 석영우              |
| 15 | 엄익준              | 김성덕              |
| 16 | 박성국              | 김종환              |
| 17 | 이한호(현)<br>차욱환(예) | 유현준              |
| 18 | 정원태              | 최석상              |
| 19 | 김영립              | 윤정채              |
| 20 | 김성두              | 이지훈              |
| 21 | 이근재              |                  |
| 22 | 강수준              |                  |
| 23 | 윤차영              | 장창연              |
| 24 | 정인성(현)<br>민경식(예) | 유상양(현)<br>백영남(예) |
| 25 | 강진석              | 천성휘              |
| 26 | 김병락              | 박화영              |
| 27 | 한진석              | 고용하              |
| 28 | 윤우               | 김영철              |
| 29 | 양철환              | 엄영경              |
| 30 | 김주혁              | 박성준              |

다. 10次年度 任員選出



總同窓會 會長團 10戰飛 訪問

總同窓會 會長團은 지난 1월 22일 最前方 領空守護를 擔當하는 10戰鬪飛行團(단장 준장 윤재원)을 訪問하여 장병들을 激勵하였다. 團長은 會長團을

基地發展計劃, 現代化된 裝備와 大隊建物を 가진 第131戰術偵察大隊를 紹介하였다. 午餐은 部隊 參謀들과 함께 하면서 基地發展 및 總同窓會 運營 發展 등에 관한 懇談會를 가졌다.



空士 校長 總同窓會 任員 招請

空軍士官學校 校長(中將 朱昌成)은 지난 3월 21일(토) 오전 總同窓會 운영을 위해 수교하는 總同窓會 任員(9차 運營期數 全理事)을 母校에 招請하여 學校 현황 브리핑과 더불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대하여 참모들과 같이 진지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오후에는 總同窓會 임원, 지휘관 참모들과 같이 運動을 하고 저녁에는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었다.



### 總同窓會長 50期 卒業生과의 對話

姜敏秀 總同窓會長은 지난 3월 5일 11:00 母校에서 새로 任官하는 50期 全 卒業生(193명)을 對象으로 將校로서 첫발을 내딛는 後輩들에게 자신의 32년간 공군의 飛行生活, 軍 要職의

參謀와 指揮官(參謀次長, 空士 30代 校長)의 豊富한 經驗, 그리고 總同窓會長으로서 總同窓會 運營과 發展方向에 대해 1시간 동안 對話를 가졌다.

### 4期士官 行事

4期士官(會長 金煥棕)은 지난 5월 4일 入校 50주년을 맞이하여 母校가 主管하는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校長(中將 朴成國)의 歡迎辭, 4期士官 會長의 記念辭,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한 發展基金(2,300만원)을 전달하

였다. 記念式 後 學生들로부터 星武儀式(閱兵, 分列)을 받고 生徒 見學과 學生들과 더불어 生徒食堂에서 50년 前을 回顧하며 午餐을 함께 한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歸京 路에는 獨立記念館을 觀望하였다.



### 5期士官 行事準備

5期士官(新星會, 會長 崔泓善)은 기생회장단과 박용태(行事推進委員長) 위원장 등 임원 8명이 강남 메리웃 호텔에 모여 오찬을 하면서 입교 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사전준비 회의를 하였다.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渉外活動은 박용태 위원장이 직접 책임을 맡아

수행하며, 資金(이병직, 장기현, 이재우), 輸送(나병순), 宿食(성보경), 餘興(김종남)에 대한 행사준비 責任分擔 委員會를 定하였다. 그리고 등산모임, 바둑모임, 골프모임에 많은 회원이 참여할 것을 회원들에게 독려하기로 하였다.

### 9期士官 行事

9期士官(會長 姜敏秀)은 지난 3월 26일(관악산), 4월 30일(정계산) 2회에 걸쳐 동기생간 親睦을 더욱 敦篤히 하기 위하여 많은 회원(부부동반)이 參席하는 가운데 등산을 하였다. 등산 후 會長은 總同窓會 協助에 報答하기 위하여 午餐자리를 마련하였다.

3월 28에는 總同窓會 사무실에서 동기생 바둑 愛好家들이 모여 親善 바둑대회를 가졌으며, 優勝에는 李俊昊 회원이, 準優勝에는 崔良鍾 회원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5월 9일 1박 2일 日程으로 總同窓會 9次年度 業務를 成功的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同期生(부부동반) 團合會와 最前方 領空防衛를 擔當하는 空軍 第20戰團飛行地域 訪問하여 將兵들을 激勵하였으며 歸京 路에는 安眠도 꽃 박람회를 觀望하였다.

### 10期士官 行事

10期士官(十哲會 會長 金秉台)은 지난 5월 7일 1박 2일 日程으로 任官 40周年 記念과 200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10차년도 總同窓會 運營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同期生 團合大會를 통해안 지역(강릉)에서 가졌다.

### 20期士官 任官 30周年 行事

20期士官은 지난 4월 27일과 28일 2일에 걸쳐 夫婦同伴 任官 30周年 行事를 하였다. 첫날은 母校가 主管하는 行事에 發展基金 전달(500만원), 學校 現況 聽取, 記念式(星武 儀式),

학교 견학, 學生들과의 午餐 등으로 뜻깊은 날을 보냈으며 둘째 날에는 淸州地域 觀光(속리산, 운보의 집, 대청댐)과 歸路에는 國立 顯忠院(大田)을 參拜하였다.



### 나의 처녀비행, 인수봉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청명한 초여름 하늘을 가르며 새하얀 비행 훈련을 남긴 제 제트기 한 대가 지난다. 그 투명한 하늘을 꿰뚫듯 솟아오른 북한산 인수봉을 오르는 클라이머가 슬며시 헬멧을 벗고 하늘을 바라본다.

'중력과 힘겨운 투쟁을 벌이며 한발 한발 하늘로 오르는 등반행위는 창공을 가르며 질주하는 비행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코오름 등산학교 정규반 34기를 수료한 공군 파일럿 출신 인수봉 회원(예비역 대령 12기, 62세)은 지난 4주차 실습교육에서 처음으로 인수봉 정상에 올랐다. 인수봉 정상에 오른 그의 감회는 남달랐다.

"39년 전 전 처녀비행의 감각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난 64년 공군사관학교 12기로 임관 후 여의도 비행장을 이룩했던 처녀비행을 떠올렸다.

기체가 완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 순간 긴장과 흥분으로 오로지 눈앞의 계기반 밖에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이윽고 기체가 일정 고도에 이르러 안정되자 미소 캐노피 밖의 광경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굽어치는 강물과 꿈틀대는 산줄기들이 발아래 펼쳐졌다.

"우정 B코스 등반을 했는데 비행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 훈련시에도 균형감각과 적절한 힘의 안배가 필요하거든요. 정상에

(4면에서 이음)

섯을 때의 감격도 마찬가지였지요. 세상을 굽어보는 느낌. 특히 백운대에 오를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감개무량했지요.” 공군 전투 조종사로 시작된 그의 비행 이력은 전투비행단 대대장, 작전부장, 공군교재창장 등을 거쳐 '90년 3월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27년간 항공을 누비던 그가 예편 후 산에 입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공중에서 내려다 보이는 것이 늘 산이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산하를 꼭 두발로 걷고 싶었다. 그래서 '99년부터 매일 두 차례씩 백두대간을 중주했다.

또한 매일 세 차례씩 오르는 북한산 백운대에서 인수봉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곤 늘 인수봉을 올라보고 싶었어요. 임회원이 인수봉에 올라 백운대를 건너다 바라보며 감개무량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산행을 계속 하다보니 체계적인 등산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또 암벽등반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산행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수봉을 올라보고 싶었어요.” 임회원의 등산학교 입교동기다. 3,800시간의 비행 기록을 갖고 있는 임회원에게는 고도에 따르는 공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체력에도 자신 있다. 완벽한 신체조건이 아니고서는 전투 조종사는 꿈도 꿀 수 없다. 벌써 암벽등반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임씨는 이번 주말에도 인수봉을 오를 계획이다.

백운대를 오르며 인수봉에 오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사람들 중 실제로 자신의 열망을 이루어 낸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임회원은 62세에 그 열망을 이루어 낸 사람이 되었다. 또, 겨울에는 동계반에 입학해 빙벽등반을 시작할 작정이고, 남은 아홉 개의 정맥도 완주할 계획이다.

그에게는 이제 등반이 새로운 비행이 되었다. 등반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비행.

## 總同窓會 法人으로 登錄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는 지난 3월 4일부로 국세청으로부터 法人으로 承認받았다. 法人으로 承認받으면 團體名이 法的으로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라고 불리어지고 또한 固有 番號(108-82-61424)를 갖게 되어 金融去來(지리) 利用과 稅制上의 利益을 보게 된다(參考 : 金融去來시 預金主 :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 주 소 변 경

| 기수 | 성 명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1  | 김창열 | 경기 고양 일산구 덕2동 382-13 동양라파크(아) 103-703호   | 411-808 | 031-922-2578 |
| 1  | 윤승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삼익(아) 524-303호      | 412-738 | 031-811-6788 |
| 1  | 이관모 | 경기 용인 기흥읍 보라리 553 민속마을 쌍용(아) 105-603호    | 449-954 | 031-286-9694 |
| 2  | 이지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37 상현마을 금호3단지 273-403   | 449-130 | 031-306-9637 |
| 3  | 김동호 | 경기 용인시 상현동 857 만현마을 10단지 아이파크 1004-1701호 | 449-130 | 031-265-0680 |
| 3  | 김인기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99-2 현대빌라트 1001호           | 137-849 | 02-585-5005  |
| 3  | 박석현 | 경기 파주시 검산동 130-8 성원(아) 104-601           | 413-702 | 031-949-2329 |
| 3  | 이원재 |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 217-1402          | 463-773 | 031-605-0802 |
| 4  | 구자춘 | 경기 김포 북변동 690 산호(아) 105-1211호            | 415-714 | 031-986-9607 |
| 4  | 김석용 | 서울 용산 동부이촌동 301-162 현대(아) 33-1001호       | 140-723 | 02-791-3663  |
| 4  | 안우일 | 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212 흥릉동부(아) 104-1401호       | 130-868 | 02-957-3649  |
| 4  | 이래석 | 경기 고양 일산구 주엽동 29 문촌마을 삼익(아) 406-901호     | 411-747 | 031-914-3564 |
| 4  | 정구현 | 경기 용인 수지 상현동 837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 273-302호    | 449-130 | 031-272-2420 |
| 4  | 홍희태 | 경기 용인 구성읍 보정리 1167 진산마을 삼성6차(아)          | 437-737 | 031-272-5117 |
| 4  | 홍재학 | 경기 용인 구성읍 보정리 1162 동아슬레시티(아) 129-1802호   | 449-910 | 031-305-8651 |
| 5  | 김종남 | 경기 성남 분당구 금곡동 210 트리플러스-1 C-614호         | 463-805 | 031-728-0883 |
| 5  | 김흥규 | 서울시 강서구 화곡5동 79-9 문화주택 마-301호            | 157-869 | 02-2602-1134 |
| 5  | 박동섭 | 경기도 시흥시 장원동 청구(아) 507-1801호              | 429-740 | 031-317-3749 |
| 5  | 박성현 | 대전 서구 관저동 1137 구방마을(아) 507-301호          | 302-723 | 042-543-7382 |
| 5  | 박증식 | 서울 은평구 갈현2동 402-8 선경세르빌 301호             | 122-813 | 02-385-4260  |
| 5  | 양영직 | 서울 강남 개포동 12 대치(아) 216-313호              | 135-797 | 02-459-6356  |

| 기수 | 성 명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5  | 여태현 |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1696 보라매우성(아) 809호         | 151-121 | 02-846-2697   |
| 5  | 이대영 | 경기 양평 양평읍 도곡2리 265                      | 476-801 | 031-771-2445  |
| 5  | 이성배 | 경기 용인 상현동 상현마을 현대성우2차(아) 161-302호       | 449-843 | 031-266-7953  |
| 5  | 정순갑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76 한마을(아) 102-2502호        | 152-752 | 02-2066-2273  |
| 5  | 함태상 | 경기 경포 산본동 1151-9 설악(아) 857-202호         | 435-753 | 031-392-0016  |
| 5  | 황교찬 |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27-73                      | 152-892 | 02-686-1983   |
| 7  | 권유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107-1 대명(아) 101-404호        | 472-737 | 031-591-7886  |
| 7  | 박태환 | 경기 의왕시 왕곡동 599 선경원호(아) 104-101호         | 437-737 | 031-456-7128  |
| 7  | 체인수 |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621 수원동마을 쌍용(아) 303-404 | 449-942 | 031-274-3298  |
| 8  | 김삼록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라일락마을 서해(아) 2328-1303호    | 420-030 | 032-321-7993  |
| 8  | 장정호 | 서울 서초 양재동 325-6(5층)                     | 137-897 | 02-575-7273   |
| 8  | 전순배 | 경기 양평 양서면 증동1리 374                      | 476-821 | 031-774-9703  |
| 9  | 강복수 | 경기 고양 일산구 탄현동 탄현마을 601-1001호            | 411-755 | 031-917-1957  |
| 9  | 임병선 | 경기 과천시 중앙동 33-5 301호                    | 427-805 | 02-502-1149   |
| 9  | 정원호 |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동 34 셋별마을 라이프(아) 110-602호   | 463-748 | 031-702-7744  |
| 9  | 현동렬 | 인천 서구 가정동 5-36 풍성빌라 101호                | 404-230 | 032-565-5748  |
| 10 | 권영락 | 경기 성남 분당구 이매동 143 이름마을 효성(아) 701-2302호  | 463-737 | 031-705-5151  |
| 10 | 박복권 | 경기 거제 능포동 357-32 미진그린타워 208호            | 656-901 | 055-681-4543  |
| 11 | 김홍천 |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625 교동마을 110-1102호      | 449-912 | 031-287-2900  |
| 11 | 조남탁 | 경기 군포 산본동 삼현(아) 836-1802호               | 435-040 | 031-391-9930  |
| 12 | 임수남 | 서울 은평구 갈현2동 519-2 아이원빌 202호             | 122-815 | 02-358-4386   |
| 13 | 유병각 | 경기 용인 상현동 858 만현마을 아이파크 506-801호        | 449-130 | 031-306-8785  |
| 13 | 장덕수 | 충북 청주 상당구 금원동 풍림(아) 101-103호            | 360-070 | 043-223-7190  |
| 13 | 최정덕 |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694 신림현대(아) 105-508호      | 151-761 | 02-874-9204   |
| 14 | 박진재 |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6 행당현대타운 111-2303호         | 133-777 | 02-2292-5729  |
| 14 | 이역수 |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아) 115-604        | 463-919 |               |
| 14 | 이용석 | 경기 용인 수지구 죽전1동 1112 중앙하이츠빌 103-1601호    | 449-845 | 031-261-1702  |
| 14 | 이우덕 | 경기 광주 오포읍 신현리 현대모닝(아) 103-202호          | 464-895 | 031-726-2112  |
| 14 | 한정구 | 경기 용인시 상현동 859 만현마을 1단지 롯데(아) 110-1303호 | 449-130 | 031-264-7066  |
| 15 | 전경문 | 서울 강남 삼성동 48 한일(아) 101-702호             | 135-090 | 02-545-0046   |
| 16 | 배충경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신안(아) 801-1206     | 412-725 | 031-812-2194  |
| 16 | 임정민 |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771 반도보라빌리지 107-701호       | 437-081 |               |
| 17 | 김계수 | 서울 관악 봉천6동 우성(아) 101-1501호              | 151-775 | 02-885-6075   |
| 18 | 김진수 | 서울 강서 가양동 1476 중앙하이츠(아) 103-202호        | 157-751 | 02-658-9521   |
| 18 | 손인익 | 경기 용인 상현동 852 만현마을 쌍용(아) 605-1303호      | 449-843 | 031-261-1638  |
| 18 | 이기택 | 서울 강남 역삼동 개나리(아) 40-203호                | 135-986 | 02-6241-3009  |
| 19 | 서경수 | 대구 달서구 태곡동 77 대곡청구타운 103-1909호          | 701-751 | 033-641-1503  |
| 19 | 이계배 | 서울 서초 잠인동 한신2차(이) 105-1106호             | 137-797 |               |
| 19 | 이인영 | 경기 성남 분당구 이매동 금강(아) 106-501호            | 463-796 | 031-706-5707  |
| 20 | 차광수 | 충북 청주 상당구 용암동 2433 중흥마을 부영(아) 601-902호  | 390-812 | 043-232-6887  |
| 21 | 이수남 |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61-1 대림(아) 102-1601호      | 157-837 | 02-6737-1970  |
| 22 | 최용현 | 경기 고양 일산구 마두동 강촌마을 205-102호             | 411-716 | 031-906-1659  |
| 26 | 유지훈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7-2 병호(아) 101-1405호   | 422-040 | 032-653-0917  |
| 34 | 양상철 | 경기 고양 일산구 일산3동 1071 후곡마을10단지 1006-1202호 | 411-735 | 011-5699-0563 |
| 34 | 정상길 | 경기 고양 일산구 일산2동 1573-7 중산마을 704-504호     | 411-728 | 031-976-3135  |
| 35 | 이치원 | 경기 고양 일산구 마두동 732 백마마을 301-501호         | 411-709 | 031-905-7561  |

전역자 현황(2002년)

| 번호 | 기수 | 계급 | 성명  | 병과   | 전역일 |
|----|----|----|-----|------|-----|
| 1  | 17 | 소장 | 고종무 | 조종   | 1월  |
| 2  | 17 | 소장 | 김석우 | 조종   | 1월  |
| 3  | 17 | 소장 | 장호근 | 조종   | 1월  |
| 4  | 19 | 대령 | 정선구 | 인사행정 | 2월  |
| 5  | 20 | 대위 | 김규식 | 정보   | 3월  |
| 6  | 20 | 준장 | 김원춘 | 정보   | 1월  |
| 7  | 23 | 중령 | 감홍조 | 보급수송 | 6월  |
| 8  | 23 | 대령 | 김우규 | 정훈   | 1월  |
| 9  | 23 | 대령 | 김종현 | 보급수송 | 1월  |
| 10 | 23 | 대령 | 김진필 | 조종   | 1월  |
| 11 | 23 | 대령 | 박종화 | 무기정비 | 6월  |
| 12 | 23 | 대령 | 서구범 | 조종   | 6월  |
| 13 | 23 | 대령 | 이영욱 | 조종   | 6월  |
| 14 | 23 | 중령 | 한재구 | 항공통제 | 3월  |
| 15 | 24 | 중령 | 김규선 | 무기정비 | 5월  |
| 16 | 26 | 중령 | 전병구 | 조종   | 4월  |
| 17 | 27 | 대령 | 황혜원 | 조종   | 6월  |
| 18 | 28 | 대령 | 이재원 | 조종   | 4월  |
| 19 | 28 | 대령 | 조민식 | 보급수송 | 6월  |
| 20 | 29 | 중령 | 김영본 | 조종   | 5월  |
| 21 | 29 | 중령 | 이강운 | 조종   | 5월  |
| 22 | 29 | 소령 | 최종권 | 방공포병 | 3월  |
| 23 | 30 | 소령 | 김종국 | 정보통신 | 3월  |
| 24 | 30 | 중령 | 나시중 | 조종   | 5월  |
| 25 | 30 | 중령 | 윤현욱 | 정보통신 | 6월  |
| 26 | 32 | 중령 | 남정호 | 시설   | 3월  |
| 27 | 32 | 중령 | 황귀남 | 헌병   | 6월  |
| 28 | 34 | 소령 | 권순민 | 조종   | 5월  |
| 29 | 34 | 소령 | 서희창 | 조종   | 5월  |
| 30 | 34 | 소령 | 심재관 | 조종   | 5월  |
| 31 | 34 | 소령 | 이성희 | 조종   | 5월  |
| 32 | 34 | 소령 | 이정근 | 조종   | 5월  |
| 33 | 34 | 소령 | 장윤익 | 조종   | 5월  |
| 34 | 34 | 소령 | 한경용 | 조종   | 5월  |
| 35 | 35 | 소령 | 구영희 | 조종   | 5월  |
| 36 | 35 | 소령 | 김철  | 보급수송 | 4월  |
| 37 | 35 | 소령 | 김기석 | 조종   | 5월  |
| 38 | 35 | 소령 | 김혜룡 | 조종   | 5월  |
| 39 | 35 | 소령 | 박기완 | 조종   | 5월  |
| 40 | 35 | 소령 | 유병빈 | 조종   | 5월  |
| 41 | 35 | 소령 | 이용식 | 정보통신 | 5월  |
| 42 | 35 | 소령 | 정준섭 | 정보통신 | 1월  |
| 43 | 35 | 소령 | 정현호 | 조종   | 5월  |
| 44 | 35 | 소령 | 홍석준 | 조종   | 5월  |
| 45 | 36 | 소령 | 김남근 | 조종   | 5월  |
| 46 | 36 | 소령 | 김동욱 | 시설   | 2월  |
| 47 | 36 | 소령 | 윤상원 | 조종   | 5월  |
| 48 | 36 | 소령 | 이수규 | 정보통신 | 2월  |
| 49 | 36 | 소령 | 정형석 | 조종   | 5월  |
| 50 | 37 | 소령 | 강대구 | 조종   | 5월  |

| 번호  | 기수 | 계급 | 성명  | 병과   | 전역일 |
|-----|----|----|-----|------|-----|
| 51  | 37 | 소령 | 고승희 | 조종   | 5월  |
| 52  | 37 | 소령 | 기노신 | 조종   | 5월  |
| 53  | 37 | 소령 | 김경학 | 조종   | 5월  |
| 54  | 37 | 소령 | 김금순 | 조종   | 5월  |
| 55  | 37 | 소령 | 김기영 | 조종   | 5월  |
| 56  | 37 | 소령 | 김길현 | 조종   | 5월  |
| 57  | 37 | 소령 | 김병길 | 조종   | 5월  |
| 58  | 37 | 소령 | 김석국 | 조종   | 5월  |
| 59  | 37 | 소령 | 김성환 | 조종   | 5월  |
| 60  | 37 | 소령 | 김연규 | 조종   | 5월  |
| 61  | 37 | 소령 | 김재철 | 조종   | 5월  |
| 62  | 37 | 소령 | 김홍식 | 조종   | 5월  |
| 63  | 37 | 소령 | 류창상 | 조종   | 5월  |
| 64  | 37 | 소령 | 백우진 | 조종   | 5월  |
| 65  | 37 | 소령 | 성영기 | 조종   | 5월  |
| 66  | 37 | 소령 | 성일환 | 조종   | 5월  |
| 67  | 37 | 소령 | 손창인 | 조종   | 5월  |
| 68  | 37 | 소령 | 송치호 | 조종   | 5월  |
| 69  | 37 | 소령 | 신현만 | 조종   | 5월  |
| 70  | 37 | 소령 | 심성래 | 조종   | 5월  |
| 71  | 37 | 소령 | 원수연 | 조종   | 5월  |
| 72  | 37 | 소령 | 유영진 | 조종   | 5월  |
| 73  | 37 | 소령 | 유용철 | 조종   | 5월  |
| 74  | 37 | 소령 | 윤태수 | 조종   | 5월  |
| 75  | 37 | 소령 | 이훈  | 조종   | 5월  |
| 76  | 37 | 소령 | 이강원 | 조종   | 5월  |
| 77  | 37 | 소령 | 이관우 | 조종   | 5월  |
| 78  | 37 | 소령 | 이근우 | 조종   | 5월  |
| 79  | 37 | 소령 | 이동훈 | 조종   | 5월  |
| 80  | 37 | 소령 | 이만길 | 조종   | 5월  |
| 81  | 37 | 소령 | 이병곤 | 조종   | 5월  |
| 82  | 37 | 소령 | 이순로 | 조종   | 5월  |
| 83  | 37 | 소령 | 이장현 | 조종   | 5월  |
| 84  | 37 | 소령 | 이재경 | 조종   | 5월  |
| 85  | 37 | 소령 | 이재권 | 조종   | 5월  |
| 86  | 37 | 소령 | 이준혁 | 조종   | 5월  |
| 87  | 37 | 소령 | 이현범 | 조종   | 5월  |
| 88  | 37 | 소령 | 장완수 | 조종   | 5월  |
| 89  | 37 | 소령 | 정장룡 | 조종   | 5월  |
| 90  | 37 | 소령 | 조병두 | 조종   | 5월  |
| 91  | 37 | 소령 | 천성문 | 조종   | 5월  |
| 92  | 37 | 소령 | 최기명 | 조종   | 5월  |
| 93  | 37 | 소령 | 최진욱 | 조종   | 5월  |
| 94  | 37 | 소령 | 추병대 | 조종   | 5월  |
| 95  | 37 | 소령 | 한덕완 | 조종   | 5월  |
| 96  | 38 | 소령 | 이동규 | 조종   | 2월  |
| 97  | 39 | 소령 | 정광진 | 보급수송 | 3월  |
| 98  | 45 | 대위 | 강영훈 | 교육   | 2월  |
| 99  | 45 | 대위 | 강호균 | 보급수송 | 2월  |
| 100 | 45 | 대위 | 박근배 | 정보통신 | 2월  |
| 101 | 45 | 대위 | 이무해 | 항공통제 | 2월  |
| 102 | 45 | 대위 | 이용근 | 정보통신 | 2월  |
| 103 | 45 | 대위 | 이지환 | 정보통신 | 2월  |
| 104 | 45 | 대위 | 임영진 | 헌병   | 2월  |

# 北韓의 對南 政策 實體



姜 容 求(공사 67기)

## 1. 임동원 특보를 받아들인 의도

북한은 알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의 혼돈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햇볕정책으로 이름이 거론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회의 또한 함께 하고 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이산가족 상봉 등을 지연시키더니 또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던 제2차 남북경제 협력 추진위원회를 교통신부장관 발언과 금강산 댐 붕괴 위원성을 우리가 강조하였다는 구실로 무산시켰다.

무려 17개월만에 다시 열리는 남북경제 협력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호 임동원 대통령 특사로 평양방문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시 합의된 내용임에도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았다. 최고 당국자간의 합의도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태도를 보여준 사실로 그 동안 침체된 남북관계가 원상 회복될 것이냐고 떠들어댄 현정부는 멀쩡해지고 말았다. 결국 북한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속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에서 볼 때 북한은 남쪽의 임기말 정권과는 상대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도 임 특보를 받아들이고 합의문에서 명했던 이유는 몇 가지 있다. 먼저 2003년 위기설을 강

조해 온 남측의 의도를 알아볼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북측에 너그러운 현정권이 끝나기 전에 식량과 비료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내자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남한의 대선 분위기를 읽고 우리의 정국을 살피는데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차기 대선 후보의 각축전으로 인한 현정권의 부정부패로 인한 위상추락이 북한의 대남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 교체기에 맞았던 클린턴 행정부와 합의문이 부시정부가 등장하자 휴지조각으로 변한 체험을 교훈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 2. 북한 군부와 대남 정책

점의선 철도 연결과 금강산 육로 관광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 등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벽에 부딪칠 때마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 한마디는 온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는 혼란스러움마저 가져다 주고 있다. 군부를 잘 들여다보면 의문점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

북한은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혁명국가이며 그 중심에 군대가 서 있다. 지도자와 체제 군중 모두 군대에 의해 그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으며 바로 여기서 군대의 입김이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과거 조선조시대 가장 충직한 신하는 임금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아니됩니다를 서슴없이 직언을 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부 엘리트들은 체제와 지도자의 안녕을 구실로 아니됩니다를 내세우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로 인민군 총참모

장 김영춘 차수와 정치국 선전국장 박재경 대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총참모장 김영춘 차수는 강성군인의 대명사로 경의선을 열어놓으면 남쪽 군대가 올라온다는 말을 서슴없이 주장하는 자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간부사업을 총괄하는 간부담당비서 김국태 등이 동조하고 있다. 김정일이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하여 천지개벽의 현상 상해를 잘 때 이들 모두 대동하고 나갔다.

김정일의 뜻을 거역하면 숙청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가질 수 있으나 모든 공직에 임기가 없는 북한에서 한번 확고한 기반을 가진 고위직은 함부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혁명적 혈통을 기반으로 하나가 된 엘리트 집단에서 함부로 누구를 내몰 수는 없도록 꼭 짜여진 것이 북한의 지배구조이다.

특히 체제 안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담과 내각, 그리고 김정일마저 함부로 군대를 다룰 수 없는 현실이 군부의 입김을 더욱 세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군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경의선과 동해선, 그리고 금강산 육로 관광길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군부의 외화벌이가 대외적으로 고갈되고 우리와의 군사적 신뢰가 확고히 보장되는 날이 와야 군대가 동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내부 사정을 잘 읽고 대북 관계에 대처하면서 인내 있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취할 대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 3. 앞으로의 대북 자세

통일의 길은 험하고 멀다. 따라서 우리는 성급히 통일을 서둘러서도 안되고 낙관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통일의 파트너가 변해야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한계에 처해 있다. 모택동 시대 중국이 변할 수 없었던 것은 권력핵심의 혁명성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후계자들인 혁명 2~3세들

이 포진하고 있는 북한 역시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다. 변화 자체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게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대북 포용정책이 가지는 민족사적 의의는 자못 크다.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고자 고심한 노력을 역사는 반드시 평가해 줄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본질을 다소 외면하면서 그들의 군사주의 우선에 아량을 베풀지는 않았는지 반성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가수 김연자를 초청하고 최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의원을 초청하면서 여전히 대남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는 엄연한 의미에서 유화정책이 아니다. 과거 북한이 대남 선동과 체제선전의 주인공들로 활용하던 최덕신과 최홍희 등의 뒤를 김연자와 박근혜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한사람이라도 많이 북한 땅을 밟다보면 자유의 바람이 불어가고 북한주민들의 가슴이 열려질 것이다. 긍정적인 희망을 갖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체제가 공고해지고 군사력이 강화되어서 북한주민들에게 강압적인 전체주의 정부가 지속된다는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너도나도 평양으로 달려가 대접받고 와서는 나 평양 다녀왔노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북한 땅을 밟아야 할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우리의 통일은 북한의 변화를 실재로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도 풀 수 없는 통일의 속제는 북한의 바람직한 새로운 변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남쪽에 건설된 자유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반복해서 교육해 나가야 한다. 남북 7천만 민족과 인류가 추구하는 체제로 병합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빠른 통일의 길이 될 것이다.

## 회혼(華婚)

|    |              |    |       |         |
|----|--------------|----|-------|---------|
| 장남 | 춘(4기)의 아들    | 장남 | 정 환 군 | 3월 31일  |
| 김용 | 만(5기)의 아들    | 아들 | 문 석 군 | 5월 4일   |
| 김재 | 성(5기)의 아들    | 아들 | 광 석 군 | 4월 27일  |
| 한영 | 섭(5기)의 아들    | 아들 | 중 우 군 | 6월 15일  |
| 김정 | 동(7기)의 아들    | 장남 | 내 현 군 | 4월 12일  |
| 김형 | 식(7기)의 아들    | 차남 | 문 욱 군 | 3월 15일  |
| 김도 | 식(8기)의 아들    | 차남 | 상 우 군 | 5월 11일  |
| 김광 | 순(9기)의 아들    | 장녀 | 심 명 양 | 2월 24일  |
| 이경 | 현(9기)의 아들    | 장남 | 재 호 군 | 5월 12일  |
| 조희 | 열(9기)의 아들    | 장남 | 육 현 군 | 5월 25일  |
| 이관 | 수(10기)의 아들   | 장녀 | 현 승 양 | 3월 8일   |
| 김판 | 석(11기)의 아들   | 차녀 | 현 승 양 | 1월 27일  |
| 남석 | 훈(고 11기)의 아들 | 차녀 | 현 승 양 | 12월 29일 |
| 신동 | 윤(11기)의 아들   | 장녀 | 미 영 양 | 4월 12일  |
| 배기 | 준(12기)의 아들   | 차남 | 빈 호 군 | 5월 26일  |
| 정병 | 호(14기)의 아들   | 장녀 | 주 연 양 | 6월 1일   |
| 최병 | 식(14기)의 아들   | 장남 | 광 호 군 | 3월 9일   |
| 남상 | 혁(15기)의 아들   | 장남 | 광 우 군 | 4월 13일  |
| 보상 | 현(15기)의 아들   | 장남 | 광 영 군 | 2월 16일  |
| 최석 | 상(15기)의 아들   | 장남 | 주 원 군 | 5월 18일  |
| 감명 | 식(16기)의 아들   | 장남 | 재 혁 군 | 5월 19일  |
| 강철 | 수(16기)의 아들   | 장남 | 경 모 군 | 1월 27일  |

|    |            |    |       |        |
|----|------------|----|-------|--------|
| 원철 | 회(17기)의 아들 | 장남 | 제 강 군 | 3월 17일 |
| 이연 | 신(19기)의 아들 | 장녀 | 윤 심 양 | 3월 23일 |
| 이영 | 순(19기)의 아들 | 장녀 | 지 은 양 | 4월 7일  |
| 김호 | 동(20기)의 아들 | 장녀 | 지 영 양 | 4월 21일 |
| 차종 | 권(20기)의 아들 | 장녀 | 진 화 양 | 5월 5일  |
| 이승 | 희(22기)의 아들 | 장녀 | 보 람 양 | 6월 22일 |

## 부음(訃音)

|    |        |     |        |
|----|--------|-----|--------|
| 김영 | 준(8기)  | 별세  | 6월 14일 |
| 송재 | 선(8기)  | 모친상 | 5월 2일  |
| 강복 | 수(9기)  | 모친상 | 4월 15일 |
| 계용 | 교(12기) | 모친상 | 4월 10일 |
| 문태 | 일(20기) | 부친상 | 3월 14일 |
| 안광 | 욱(22기) | 별세  | 3월 25일 |
| 박창 | 권(27기) | 모친상 | 12월 4일 |
| 오승 | 학(37기) | 순직  | 3월 14일 |
| 임재 | 식(40기) | 순직  | 3월 14일 |
| 최지 | 운(46기) | 순직  | 3월 14일 |

- 기생별로 주소록(라벨포함) 신청서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 에·경사시 연락하여 주시면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 회원 별세시 총동창회 명의로 弔花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창회 弔旗 활용(회원 및 직계가족)을 권장합니다.

# 母 · 軍 · 消 · 息

## 空軍參謀總長 離 · 就任式

- 第27代 空軍參謀總長에 金大郁 大將 就任
- 祖國 領空 守護 任務完遂할 指揮權 移讓



〈약 력〉  
출 생 : 대구 달성  
출신학교 : 대구사범, 공사(15기, '67년 입관), 한국파학원(박사학위)  
주요보직 : 공본 정보작전참모부장  
국방부 조직인력관  
공군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참모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제 26 · 27대 공군참모총장이 · 취임식이 지난 3월 2일(토) 오전 김동신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 · 해군참모총장 및 군 고위장성, 역대 공군참모총장, 내외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제27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金大郁 대장(공사 15기, 58세)은 김동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군기와 함께 영공 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완수할 지휘권을 인수하고 조국 영공 수호에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인사명령 하달, 지휘관 이양, 열병, 국방부장관 훈시, 이임 및 전역사, 취임사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행사 말미에는 전투기 편대의 축하비행

이 행사장 상공에서 펼쳐졌다.

신임 金大郁 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21세기를 이끌어갈 공군의 뒝은 정보전, 사이버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선진정보공군」을 건설하여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것이다"며 "미래전 수행과 국익수호의 주도전력으로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과학군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확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첨단 신지식과 창의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적극 양성」하며, 적재적소에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높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인간중심의 지휘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다"고 말했다.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비행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활동 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지난 비행사고로 인한 사고조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뮬레이터 등 지상모의 장비를 적극 활용, 조종사의 전투기량을 유지함으로써 영공방위 소임완수에 조급의 허점도 없이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가 지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기본과 원칙에 따른 임무수행으로 신뢰받는 공군상을 정립하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것을 다짐했다.

金 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F-X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의견을 대외로 표출하는 것은 군인의 신분을 잃은 군기강의 문제"라며 장병들에게 "보안의식을 확고히 하고 임무수행 질차를 준수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空軍이 지금까지 F-X사업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통일된 견해를 가져왔음에도 최근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군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며 "지휘부의 결정을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 空軍作戰司令部, 韓 · 美 將兵 위한 "봄맞이 작은 音樂會" 열어

공군작전사령부(司令官 中將 李漢鎬)는 4월 18일(목) 오후 청사 실내정원에서 오산기지에 근무하는 한 · 미 장병들을 대상으로 "봄맞이 작은 音樂會"를 열었다. 새 생명이 기운을 발하는 봄을 맞이하여 한 · 미 장병에게 생활의 활기를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 3월 작전사령부의 신청사 입주도 함께 축하했다.

경문대학교 생활음악학과의 현악 4중주단이 연주한 브람스의 왈츠로 경쾌하게 시작된 공연에서는 '선구자', 'Ich Liebe Dich' 등 사람들에게 익숙한 곡이 바이올린과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되었다.

현악 4중주단원 중에는 공군 장병들을 위하여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맹연습을 실시했던 만화도 심상오(61세, 바이올린 연주, 천안 교외 목사) 씨가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현악이 전하는 봄의 정취는 공군군악대 금관 5중주단 연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모형항공기 대회의 지원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이번 공연을 위해 시간을 내어 오산기지를 찾은 공군 군악대에는 'Washington Post March'를 비

롯한 행진곡과 탱고곡인 'La Con Parsita', 감미로운 가요 사랑을 위하여 등 다양한 곡을 연주했다. 봄의 정취를 한껏 선사한 공연은 평택대학교 사물놀이 공연 '그루터기'의 사물놀이 판이 펼쳐졌을 때 공연장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사물놀이의 흥겨운 한판이 끝나자 절제리듬의 흥겨운 어울림은 실내정원을 가득 메운 관람자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었다.

아들 같은 "군인아저씨"들을 위해서 열성적인 연주를 한 경문대학교 심상오 씨는 "음악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이지만, 힘들게 시작한 음악으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창한 봄 햇살 아래 현악 4중주와 금관 5중주, 그리고 사물놀이까지 펼쳐진 이번 공연은 공군작전사령부의 각 부서원들이 연합업무단 수행하고 있는 미 7공군 장병들을 초청하여 함께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한 · 미 친선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으며, 공연이 끝난 자리에서 장병들은 불우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참가함으로써 음악으로 느낀 따뜻한 감정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



## 2002年 '空軍 指揮官 會議 開催'

- 嚴正한 軍紀綱 確立과 事故 防止를 위한 決意 다짐
- 빈틈없는 領空 防衛 所任完遂를 통한 完璧한 對備態勢 維持

공군은 지난 3월 8일(금)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金大郁 공군참모총장 주재로 공군본부 참모와 각급 부대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관 교체로 인한 지휘공백을 최소화하고 영공방

위 소임완수의 각오를 다지는 2002년 「공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각 군의 사고와 자로 유출과 관련하여 군 기강을 쇠신하고 군사보안 의식을 고취

# 제24회 空軍參謀總長盃 模型航空機 本選大會 開催!

- 家庭의 달, 온 家族이 함께 즐기는 航空祝祭의 장
- 프로젝트이머들의 사이버 空中戰 並行 開催

공군은 金大郁 참모총장을 비롯한 내외귀빈,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9일(일) 空軍士官學校에서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미래로"라는 주제로 제24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주간 20,000여 명이 참가한 전국 15개 지역예선대회를 거쳐 올라온 1,300명과 본선에 직접 참가하는 200명의 선수 등 총 1,500명의 참가 선수들은 글라이더 및 고무동력, 유선조종, 무선조종 곡예비행기, 무선조종 헬리콥터, 무선 글라이더, 정밀 추속기 등 총 7개 부문 27개 종목에 걸쳐 그동안 갖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또한 지난 2001 서울 에어쇼에서 처음 실시한 바 있는 '공군참모총장배 컴퓨터 비행시뮬레이션 대회'를 병행 개최, 200여 명의 프로젝트이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중전을 펼치며 항공삼식 퀴즈 코너를 통해 공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과 비행교육대 활주로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글라이더부와 고무동력부 1~3부

는 성무연병장(퍼레이드장), 글라이더부와 고무동력부 4, 5부는 럭비구장, 유선 조종부문은 주경기장, 무선글라이더, 무선 조종 곡예비행, 무선조종 헬리콥터, 정밀추속기 비행부문은 비행교육대 활주로에서 각각 개최했다.

공사 응원단 이카루스의 오프닝 댄스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공사생들로 구성된 보컬반의 강의정 송광 대중 댄스반의 화려한 춤을 비롯하여, 사전 제작된 고무동력기 및 펼치는 무선 비행시범, 국내 유일의 최고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의 A-37 편대 6대가 펼치는 화려한 공중 곡예비행 시범 등이 펼쳐졌다.

또한, A-10 MOCK UP(시뮬레이터 체험장비) 전투비행체험, 점보트론 멀티비전 차량을 이용한 공군 홍보영화 관람, 공사 발전사 사진전, Face Painting, 항공 전문사진작가 김태엽 씨의 세계 항공사진 전시, 군가·동요 경연대회, 침주 항공엑스포 홍보, 조종복 입고 사진촬영하기 코너 등 항공축제 이벤트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항공축제의 장이 되었다.



## 21세기의 國際紛爭과 航空勢力

白 奉 鍾 教授(공사 9기)

독일의 군사이론가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일찍이 19세기 중반에 전쟁은 정치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정치가들에 의하여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도 계속 이어지며 현실정치에 적용되어 오고 있다. 최근의 예로서는 제 2차 세계대전시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현재는 미국의 부시부자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의 수단은 크게 지상전력, 해상

전력, 그리고 항공전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대외 정책 수행에 있어 핵심 군사력의 역할을 보면 지상전력은 고대부터 가장 핵심전력이 되었으며, 18~19세기에 이르러서는 해상전력이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이었으며, 이를 포함의교(Gun Boat Diplomacy)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에 비하여 항공전력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새로운 결정적 군사전력으로서 대두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하여 오고 있는데,

## 第23代 作戰司令官 就任式



<약 령>

출 생 : 경남 울주  
출신학교 : 부산고등학교, 공사 17기, 미 공군대학 Air War College 수료  
주요보직 : 19전투비행단장  
전투발전단장  
국방부 조직인력관  
호 본 정보작전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 제23대 작전사령관 李漢鏞 中將의 취임식이 지난 2월 29일(금) 李億秀 공군참모총장, 랜스 스미스 7공군사령관 등 대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신임 이한호 작전사령관은 이연수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영공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지휘권을 부여받고,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했다.

이 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작전사령부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 속에 운영되어야 하는 부대"임을 강조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훈련이 시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태세의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재임기간 중 연합작전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공군작전사령관을 이임한 김대욱 대장은 제 27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영전하였다.



이는 항공전력이 신속성과 융통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치 목표를 잘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美國의 단극체제와 항공세력

구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자 전면 전쟁이나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대신 민족이나 종교분쟁 같은 국지적 분쟁과 테러행위가 확대·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분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치전략은 전사자의 최소화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주요 전략개념은 점진적으로는 우선 지지세력 확보와 군사적으로는 항공세력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동맹군을 포함한 지지세력의 확보는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 군사력만으로 정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좋은 역사적인 예는 미국의 베트남전쟁과 구소련의 아프간전쟁 및 러시아의 체첸전

쟁을 들 수 있다.

탈냉전 후 미국은 중동이나 유럽의 분쟁에서는 NATO 국가들과 협동하여 지상전보다는 항공세력에 의하여 정치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탈냉전 후 NATO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안보노선을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그 지역의 분쟁을 이용하여 NATO의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시도할 뿐만 아니라 동구나 러시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세력 운용은 인명피해를 막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공세력이 절대 우세하여 사실상 분쟁 해결은 미국이 주도하게 되고 따라서 NATO는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잠재력이 급부상하자 항공세력이 핵심이 되는 아시아관 NATO를

# 母 · 校 · 消 · 息

## 朴成國 中將 空軍士官學校 校長 就任

- 21세기 尖端 空軍을 이끌어 갈 精銳 士官生徒 養成 強調
- 離任 朱昌成 中將, 合同參謀本部 次長으로 3일 赴任



〈약 령〉  
 出生 : 서울  
 出身學校 : 보성고, 공사(16기, '68년 입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과정  
 미국 A.W.C  
 주요보직 : -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 공군 전투발전담당  
 - 국방부 합동참모부 차장

정에 공군장교 양성의 요람인 공군사관학교장 이·취임식이 金大郁 공군참모총장과 이원종 총복지사, 나기정 청주시장 등 청주시의 기관장, 역대 공사 교장 및 육·해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36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한 朴成國 중장(공사 16기, 57세)은 1968년 공군 소위로 입관, 34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전투비행담당,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 연합사 정보참모부장, 전투발전담당,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유능한 지휘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朴成國 중장은 취임사를 통해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지휘관을 양성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훈련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심단결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한 朱昌成 중장(공사 16기)은 5월 3일,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부임하였다.

## 空士 第50期 卒業 및 任官

- 차명수(車明洙, 23세/조종) 소위,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
- '부녀·형제 보라매' 동시 탄생, 공군가족 화제 만발
- 축구 대표선수 출신 졸업생 1등, 2등 우등상 모두 휩쓸어

제50기 공군사관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식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군 내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3월 12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됐다.

지난 '98년 입교하여 4년 동안 리더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함양해 온 졸업생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공군소위로 임관했으며, 재학시절 전공과목을 토대로 공학사, 이학사 또는 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으로 전투조종사를 비롯한 공군

의 일선 지휘관으로 근무하게 될 신입장교들은 19명의 여성장교를 포함하여 조종과 정비, 무장 등 공군의 다양한 특기를 부여받아 각 전투비행단 및 레이더 사이트 등지에서 신입 장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한편, 이번 50기 졸업생 중에서 최주호(崔朱鎬) 소위가 친형 최재호 중위(공사 '00년 졸업, 조종사)의 뒤를 이어 임관하면서 공군참모총장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으며, 현역 공군 대령인 아버지(박동영, 공사 '72년 졸업)의



뒤를 이어 임관한 여성 장교 박다현(朴多賢, 여/23세) 소위로 단찬 이미지와 함께 화제를 모았다.

아울러, 지난 '98년 입교하여 4년 동안 한국인 사관생도들과 함께 생활해 온 태국의 차트론 썬취이(Chaturon Pengchui, 26세) 소위로 급년 졸업 및 임관식을 통해 한국인 동기생들과 함께 임관했다.

이번 공사 50기 졸업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차명수(車明洙, 23세, 경기 안양고, 조종) 소위가 차지했다. 특히 차소위는 지난 4년 동안 교내 축구대표선수 생활을 통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서 맹활약을 했던 만능 신세대 장교로서, 학업을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하여 수석 졸업의 영예까지 차지했다.

이날,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상 : 차명수(車明洙, 23세, 경기 안양고, 조종)
- 국무총리상 : 황의혁(黃義赫, 23세, 청주 운호고, 조종)
- 국방부장관상 : 조환정(趙桓廷, 23세, 창원 중앙고, 조종)
- 합참의장상 : 박문범(朴文範, 23세, 전주 혜성고, 조종)
- 공군참모총장상 : 최주호(崔朱鎬, 23세, 부산 동인고, 정보통신)
- 유엔군사령관상 : 박영진(朴煥鎭, 22세, 부산 경남고, 무기정비)
- 교장상 : 노세권(盧世權, 23세, 전주 상산고, 조종)

## 空士 第54期 士官生徒 入校式 舉行

- 朱昌成 空士 校長, "21세기 이끌어갈 世界 一流 士官生徒 像 強調"
- 전체수석 황은정(黃垠晶, 19세, 여) 생도, '21세기 우수인재상' 수상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제54기 공군사관생도 입교식이 2월 23일, 주창성 공사교장(중장, 공사 16기)을 비롯한 신입생 학부모 및 고교 은사, 선배 사관생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태국에서 위탁교육을 위탁사(Wuttisak, 21세) 생도를 포함한 54기 사관생도들은 지난 1월 26일 가입교하여, 4주간의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생도생활에서 요구되는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체력, 정신력을 배양한 후, 이날 정식 사관생도로 입교하게 되었다.

입교식에서 주창성(朱昌成)

공사교장은 "앞으로 주어질 4년 동안의 교육기간을 통해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개척하고 선도할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청년장교로서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21세기 첨단 공군을 이끌어갈 우수한 지휘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공군 곡예비행팀 블랙이글의 멋진 축하비행으로 그 대미를 장식했으며, 여성으로서 공사 전체수석의 영광을 차지한 황은정(黃垠晶, 19세) 생도가 "21세기를 이끌어 우수 인재상" 수상자로 결정되어 군·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 首席入學 黃垠晶(女)

### "21세기를 이끌 優秀 人才賞" 受賞

- "21세기를 이끌 여성지도자로 인정받았어요"
- "전문적 지식과 소양, 체력 갖춘 전투조종사되겠다" 소감 밝혀



지난 1월 26(토)일, 여성으로서서는 최초로 공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황은정(黃垠晶, 19세) 생도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이 시상(2월 28일)하는 "21세기를 이끌어 우수인재상(훈격 : 대통령상)"을 받았다.

"21세기를 이끌어 우수인재상"

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 격려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 제정된 상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우수하고 창의성, 지도성, 봉사성이 뛰어난거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고학), 특정분야 재능 우수자 중 2002년 2월 고등학생 졸업예정자 200여 명을 각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중앙임사위원회에서 선별하며, 특별히 고교졸업 예정자에게는 300만원의 장학금과 메달과 산업시찰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10면에서 이음)

수상자로 선정된 황은정 생도는 "가업교 전 대상자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설마 했는데, 이렇듯 큰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공사 생도로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 체력을 두루 갖추어 꿈에 그리던 전투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찬 의지를 보였다.

30여 년을 비행기와 함께 살아온 베테랑 조종사 3명이 58세의 나이로 후배 조종사 양성 훈련을 위한 마지막 교수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청주시 상공에서 고별 비행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조종사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공군사관학교 212비행교육대 비행교수로 재직해 온 이들 3명의 비행교수는

중년 시절, 민간항공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반납하고 영공방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보람으로 후배 조종사들의 비행교육에 전념해 온 이들 교관들은 무려 7천시간이 넘는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특히 이들 3인방 중 박영기 교수의 비행기록은 현역 공군

### 日本 士官生徒, 母校 "첫 入校"

- 일본 防衛隊 3학년 혼다 히로카조(本田博一) 생도 最初 入校
- 本格的인 韓·日 軍事交流의 序幕 올라

지난 '83년 이후 19년간 지속된 한·일 사관학교간의 교류가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창군 이후 일본 사관생도로는 처음 한국 위탁교육으로 선발된 일본 방위대 3학년 혼다 히로카조(本田博一, 19세) 생도가 3월 2일, 한국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함으로써, 한·일 군사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생도는 '00년 과학기술학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방위대에 입교,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혼다 히로카조 생도는 앞으로 한국 공군사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1년간 한국 생도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공군사관학교는 혼다 히로카조 생도에게 생도 후견인으로 두고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등 위탁교육 기간 동안 생도생활 및 교육과정 이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다.

한편, 공군사관학교에서는 '00년부터 이미 일본에 한국 공군사관생도들을 파견한 바 있으며, 현재 이대규 생도를 포함한 3명의 사관생도들이 수탁교육 중에 있다.

한·일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사관생도의 교류는 양국간의 군사 우호관계 증진은 물론 한·일 양국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버지 혼다 에이이치(本田榮一, 47세)와 어머니 혼다 유미코(本田 由美子, 44세)의 2남 1녀중 장남인 혼다 히로카조



지난 60년대 말 입관하여 일선 조종사로 대한민국 영공방위 임무를 위해 청춘을 다바친 하늘의 사나이들.

박영기(朴榮起, 공사16기), 강철수(姜哲洙, 공사16기), 원철희(元喆熙, 공사17기)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전투기, 혹은 수송기를 조종했던 이들의 최종 기종은 공군 훈련기 T-41.

조종사들 가운데 2번째로 많은 7,285시간. 날짜로 보면 300일이 넘는다. 수송기 조종사 시절부터 쌓아 온 비행시간은 일반 조종사들의 2배가 넘는다.

마지막 훈련비행 임무를 하고 돌아온 정년퇴임 교수에게 활주로에서 후배 교수, 교관, 조종학생들은 꽃다발과 박수로써 축하를 보냈다.

### 學籍簿 自動 發給

- 인터넷 홈페이지(www.afa.ac.kr)에서 학적부 자동 발급
- 공군사관학교 학적DB 구축 및 학적관리체계 개발로 사용자 편의 제공

"자신의 학적부와 성적표, 사이버 공간에서 신청하세요."

공군사관학교(교장 朱昌成 중장)는 졸업생 및 재학생의 성적 증명서와 학적부 등 이용자의 수요가 많은 20여 종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학적부 발급 시스템」을 개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학적부 발급 시스템」은 성적 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의 접수와 발급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군 중앙전산소와 협조, 지난 10월부터 2달여 간 심혈을 기울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결과 완성되었다.

증명서 발급 업무의 정확성과 처리속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개인적인 여건상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각급 공군부대의 공사 출신 장교들을 위해 각 부대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행정망(인트라넷)의 증명서 신청기능을 이용, 원하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용자들이 신청한 증명서의 처리에 대한 공군증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 진행과정을 "증명서 신청확인"란을 통해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명서 발급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공군사관학교는 앞으로 본 시스템을 보다 확대한 「교육융합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학적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번 「학적부 발급 시스템」은 사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2월 1일부터 정상 개통되었다.

### 航空 象徴 造形物 除幕式

- 청주시와 공군사관학교 5억원 들여 공동 사업추진
- 국제 항공도시 청주와 전투조종사의 요람 공사의 이미지 부각

공군사관학교(교장 朱昌成 중장)는 3월 9일, 공군사관학교 정문 삼거리에서 교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관들과 나기정(羅基正, 65세) 청주시장 등 청주시 관계자, 그리고 상징조형물 도안자인 김지택(金知澤) 청주교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 상징조형물" 완공을 기념한 제막식을 가졌다.

부터 7개월간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폭 16.7m, 높이 22.8m, 외경 12m의 원형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징물의 원형구조물은 둥근 하늘과 드높은 우주를, 비행체 2대는 미래의 항공기로서 창공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며 발전하는 항공력과 전장에서 승리함을 의미하고 있다.

금번 공사 "항공 상징조형물"은 국제 항공도시로 발전을 지향하는 청주시와 전투조종사의 요람인 공군사관학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01년 8월

앞으로 "항공 상징 조형물"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항공엑스포를 앞두고 항공도시 청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아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도 크게 각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空士 飛行 教授 停年退任

- 박영기 교수, 공군 2번째 최장 비행기록 보유(총 7,285시간)
- 3인방 조종사, 모든 대한민국 조종사 훈련시킨 비행교육의 산 역사
- 청주 상당산성 상공에서 후배 장교가 조종하는 훈련기로 고별 편대비행

# 회 원 기 고 란

## 어느 전투조종사의 이야기

李 培 善(공사 1기)

23호에 이미 게재(“첫출격”)했던 이배선 선배의 파란 많았던 인생歷程(越南 및 空士入校)입니다.

- 始作하는 글 -

193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나는, 1948년 12월 공산 체제에 대한 환멸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의 미래를 펼치기 위해 월남했다. 18세의 나이로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삼엄한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철의 삼각지대 부근이 된 철원, 김화의 험난하고도 깊은 산길을 통해 월남하였다. 그 이듬해인 1949년 3월, 공군에 입대한 나는 6월에 공군 사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였고 1951년 입관,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을 통해 전투조종사로서 92회의 출격을 완수하였으며, 그 후 조종 교관으로 조종사들의 후배양성에 힘썼다. 비행훈련 대대장 시절 나는 미국 공군 조종사의 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고, 전투비행단 근무를 거쳐 안전과장과 안전감으로서 항공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의 확립에 노력했다.

1967년 김해 비행학교 교장 재직시, 집반적인 후배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휘검열에서 우리 부대는 전 공군의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제반규정 이행, 철저한 감독, 신상필벌의 통솔방식과 그리고 정직과 청렴을 신념으로 했던 나의 21년의 군대생활을 마감하며 나는 1970년 4월 40세에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나의 21년 간의 군대생활을 회상해 볼 때, 전쟁 중 치열한 적의 대공포화 속에서도 별다른 사고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92회의 전투출격과, 내 고향을 향해 단 한번도 포탄을 투하하지 않았던 비록던 행운에 대해 개인적으로 나는 감사한다.

그 후 예편과 동시에 나는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다시 한번 비행기와 인연을 맺고 제2의 비행생활을 시작하였다. 민항기 기장으로서 승객들의 쾌적한 비행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21년 6개월을 보내고 1991년 6월 28일 60세의 생일을 맞으며 정년퇴직 하였다.

민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시절을 되돌아보면 돌발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긴급 착륙을 위한 접근 도중 나뭇길 맞았을 위험을 안고 어렵게 착륙했던 기억과 당시 외국항공사 조종사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휴식시간, 시차극복의 어려움,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떠오른다.

본인은 1992년 퇴직 후 미국으로 이민을 와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된 여성으로 보내고 있다. 나의 인생은 지극히 단순하다면 단순한 이력서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공군에서의 21년, 민 항공사에서의 22년 조종사 생활, 인생의 3분의 2의 시간을 하늘에서 비행기와 더불어 살았다.

총 비행시간 2만 1천 시간! 총 비행 2만 1천 시간은 서울에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까지를 약 1,000번 정도 왕복한 시간에 해당된다. 결혼생활 30년 동안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던 아내의 내조와 지금까지 잘 자라준 나의 세 자녀에게도 감사하며 내 인생의 어렵고도 위험했던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시작한다.

- 自由를 찾아 -

서울에 있는 형님이 좋아하는 말린 가재미 4마리와 배가 고플 때 식량으로 대용할 것 없던리가 든 배낭을 짊어지고 함경남도 함흥의 정동 고향집을 떠난 것은 1948년 11월 1일,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새벽녘이었다.

월남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대한 감시가 심하기에 반달전부터 기른 수염과 허술한 차림새로 행색을 갖추고, 부모 형제들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한 뒤, 월남을 시작하였다. 공산 정권으로부터 늘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자유로운 가정생활에 제약이 많이 받아 왔고, 김일성 대학 물리수학과에 응시하였으나 가정성분 관계로 대학 진학길도 막혀 부득이 38선 이남으로 월남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38선을 여러 번 건너 다녀 경험이 풍부하였으며, 이남까지 인도하여 주는 대가를 받아 사는, 그야말로 분단이 남은 회색의 직업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제대로 길도 가르쳐주지 않고, 산속에서 월남하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혼자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돈만 받고 남쪽까지 가지는 않고, 산속에서 며칠 밤만 세우다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다행스럽게 제대로 된 길잡이를 만났던 것 같았다.

우리의 일행은 60세를 막 넘긴 나의 고모부나 나, 그리고 15, 6세 정도 되는 2명의 소녀들과 안내자까지 합하면 모두 5명이었다. 1948년 후반기는 사실상 월남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고, 그 이후에는 조사가 워낙 심해졌으므로 적발될 시에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져 월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우리는 함흥 역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에 도착한 후 다시 철원행 열차로 갈아탔다. 원산역을 출발하자 차내에서의 조사는 한층 심해졌고 나는 조사원의 눈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하면서 차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위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때 나 아직 스물이나 된 청년으로 입지는 않았다. 기차 안에서 떨리고 긴장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척 애를 써야 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한 나의 변장습덕 덕분에 나는 단 한번의 간단한 조사를 받았을 뿐 성공적으로 기차에서의 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 死線을 넘다 -

38선과 가장 가까운 초창역인 철원역의 도착을 앞두고 철원역 조사가 심하다는 소리를 들은 우리는 철원역 전인 평강역에서 내려 약 30리가 되는 철원까지 걸었다. 철원에 도착한 뒤 다시 전철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김화에 도착해 저녁 늦게 허름한 여인숙에서 여장을 풀 수 있었다.

당시 해상을 통하거나 평탄한 길을 통한 월남이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우리가 월남경로를 택한 경로는 부득이하게 6·25 사면 말기의 격전지였던 철의 삼각지대 부근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일행을 데리고 길잡이가 선택한 월남경로는 지금도 뚜렷하게 떠오르는데, 첫 숙소였던 김화 여인숙에서 새벽 4~5시경 출발 때, 깊은 산속의 오솔길을 하루종일 걸은 후 해질 무렵 중간 경유지인 작고 허름한 서당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하루를 쉬 후에 다시 이른 새벽 서당을 출발, 하루종일 걸다보면 좌측 북쪽의 첫 이남 땅에 도착하게 된다는 계획이었다. 이 경로는 이북에서 소를 가지고 이남에서 팔면 약 3배가량이 넘는 이익을 넘기므로, 이익을 많이 남기고자 하는 소장사꾼들이 38선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들을 피해, 깊은 산속을 오가던 길을 길잡이들이 월남하는 사람들의 남하용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길은 어떤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길을 이용한 소의 배설물을 확인하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찾아가는 것이었다. 워낙 험한 산길이고, 밤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하므로, 아무리 산길에 자신이 있는 사람도 몇 번을 다녀도 항상 새길처럼 느끼는 험한 길이었다.

김화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새벽 5시경 우리 일행은 간단한 아침식사를 마친 후, 험한 월남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출발 2시간 정도 되었을 무렵, 이미 우리는 험한 숲속을 걷고 있었던 동행하던 나의 고모부가 점점 뒤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행군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런 고모부에게 내가 다가갔을 때, 본인은 힘이 빠져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월남을 포기하고 고향인 함흥으로 되돌아가시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에게서는 계획대로 안내자와 함께 가라고 당부하였다. 한참 열기 왕성한 청년인 나에게도 고된 산행길이 육십이 넘는 고모부에게 무리였었다. 그 당시 나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고모부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그곳에서 작별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고모부는 혹시라도 내가 드신 분이 산행을 계속하다 다른 일행에게 피해를 줄까봐, 특히 조카인 나마저도 월남을 못할까 걱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점점 더 험해지는 깊은 산길, 가파른 경사, 찌뿌드드한 날씨에 구름이 낮아지더니 이윽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였다.

출발 후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지쳐서 힘이 떨어지고 일행들과 보행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고, 점점 일행의 대열에서 처지기 시작했다. 눈발이 제법 커지면서 눈은 땅에 쌓이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길은 미끄러워 걸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나는 탈진증세에 이르렀다.

이런 나를 보며 안내자는 수시로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의 고향소리를 질렀다. 안내자가 지르는 고향소리에 익숙함과 무정함도 느끼지 못한 채 경사진 미끄러운 산길에서 일행을 쫓아 가려는 필사의 노력을 해보지만 이제는 정말로 단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여 나는 그만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동안 부실했던 식사량과 특히 다른 일행에 비해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갑작스런 심한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서 탈진이 되었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순간, 나는 어머님께서 배 고플 때 먹으라고 주셨던 옛 덩어리가 생각났다. 정말 그 와중에 옛 생각이 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배낭 속을 정신없이 뒤져, 옛을 찾은 후 돌로 깨뜨려 한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먹기 시작했다. 옛 한 덩어리를 먹은 후, 신기한 정도로 탈진증세에서 회복이 되어 원기가 나기 시작했고 기력을 되찾으면서 어느새 오히려 나는 다른 일행을 앞지르며 산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눈이 오는 깊은 산속을 헤매다 탈진하여 쓰러진 채, 어둠과 추위 속에서 씩씩 씩씩 마감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 생명을 구해준 한 덩어리의 옛은 바로 어머니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12면에서 이음)

그 후 월남한 뒤, 임시철이 땀 흘려 불 수 있는 엿을 볼 때마다 나는 나를 지켜준 그 옛이 생각나고, 또한 한편으론 사신을 해매던 비참했던 그 당시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영영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다.

한편 깊은 산속에서 소의 배설물을 찾으며 길을 찾아가던 안내자가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안내자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의 지시만 따르던 우리들은 그의 당황한 모습을 쳐다보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안내자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사람 살려 달라고 고향을 지르면서 구조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감시의 눈을 피해 험준한 월남 경로를 택한 우리 일행이었는데, 첩첩산중 눈오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자, 오히려 우리가 피했던 이북의 경비원이 나타나 구조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살아야 한다는 인간 본연의 욕구는 이념과 체제를 등지고 월남하겠다는 나의 욕망보다 훨씬 절실하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목이 매도록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네 사람의 고향소리는 산울림으로만 크게 되돌아올 뿐, 주위는 여전히 적막하였다. 한 시간 이상 외치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지른 메아리뿐이고, 아무도 우리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한껏 소리를 질렀기에, 안 그래도 지친 우리는 힘도 떨어지고 목소리도 매었고, 곧 어두움과 추위도 다가오고 있었다.

또 한 번의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몰아치기 시작하였다. 한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현 지점에서 기상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머물러 있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행히 안내자가 갖고 있던 성냥으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젖은 옷을 말리기 시작하였다. 조금씩 추위를 달래가면서 간단한 음식과 갖고 있던 말린 가재미로 시창기도 매워나갔다. 그때 우리 안내자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최소한의 비상식품으로 성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우리 일행에겐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만약 그 당시 성냥이 없었다면, 깊고 험한 산속에서의 추위와 눈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모닥불에 둘러앉은 우리 네 사람은 그 순간 추위를 잊게 하는 모닥불의 따듯함에 생사의 걱정도 잠시 잊은 채 약간의 잠도 이를 수 있었다. 새벽 세시경이 되었을 무렵, 그렇게 평평 내리던 함박눈이 멈추고 개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종종거리게 떠 있는 별들은 유난히도 맑으면서 밝고 가깝게 보였고, 이는 내게 생존에 대한 희망과 월남한 이후의 나의 생에 대해 축하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든 후 이른 아침 깨어보니 맑고 개인 푸른 하늘이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었으므로

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우리일행이 길을 잃을 당시 남겨놓았던 발자국이 언 상태로 눈 위에 어렴풋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자국을 다시 따라가면 잘못 들어온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눈 위의 발자국을 따라 올라가기로 시작했고, 약 1시간쯤 지난 후 드디어 정상봉로를 찾아내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이미 앞서 소장사들이 소를 몰고 지나간 흔적, 즉 소의 배설물을 발견하였다. 소의 배설물을 보고 우리처럼 기뻐서 소리치르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기에 그 순간 이제는 살았다는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중간 경유지인 서당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고, 하루 정도 쉬고 떠나려 했던 우리의 일정은 약간 수정되었다. 죽음직전에서 살아난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해 약 3일간 그곳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서당은 당시 지리적으로 이북의 관할지역에 속해 있었으나, 산이 깊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었다.

- 드디어 38線を 넘다 -

3일간의 휴식은 우리에게 다시 산행을 할 수 있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주었고, 우리 일행은 새벽에 서당을 떠나 다시 험난한 산길의 남행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북에 살던 부자들이 그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귀중품을 가지고 월남하던 중 이런 길은 산골에 이르면 안내원이 강도로 돌변하여 귀중품을 강탈한 후, 사람들을 깊은 계곡에 밀어 떨어뜨리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안내원으로부터 들으면서 우리는 잠깐 길을 잘못 들기는 했어도, 좋은 안내원을 만난 것에 감사하였다. 안내원으로부터 북쪽 경비병의 초소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갔도록 하라는 주위를 받아가며, 우리의 순조로운 산행은 계속되었다. 해질 무렵에는 38선 이남 최북단에 위치한 포천 북쪽에 있는 시골마을에 도착하였다. 숲을 굽는 산골마을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살았구나, 드디어 그리던 38선을 넘었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고향을 떠난 후 처음으로, 딱딱하고 불편한 마루바닥이었지만 편안한 하룻밤을 보냈다.

지금은 그 시골동네가 휴전선의 이남에 있는지 이북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게는 찾아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 중의 하나이다. 38선을 넘은 후, 안내자와 헤어져서 혼자 길을 들어가며 서울 방면으로 향하였다. 처음으로 만난 조그마한 읍에 다다르니 경찰서가 보였기에 나는 경찰서로 들어가 이북이고 향인 월남자임을 밝히고 자진하여 조사를 받고, 또한 몸수색과 휴대품 검사도 받았다. 당시 나의 휴대품은 서울에 있는 형이 좋아한다고 하여 가지고 오며 비상식량이 되어 주었던 말린 가자미 30마리와 물래 숨겨 가지고 온 광목태극기가 전부였다.

경찰서의 조사 후 다른 이상이 없는 단순 월남자라는 증명을 받아 가지고, 나는 당당히, 그리고 그리웠던 희망의 서울을 향하여 걸기 시작했다.

길은 도중에 숲을 적재한 화물차 뒤에 붙어 매달려 가다 조수에게 적발되었는데, 운전사가 어떻게 서울까지 차 뒤에 매달려 가겠느냐며 차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통에 정말 운 좋게 공짜 차를 얻어 타게 되었다. 월남해서 처음 만난 마음씨 좋은 아저씨 덕분에 나는 그동안 힘들었던 여정도 잊어버리고, 서울 돈암동 전차 정류장까지 없게 될 수 있었다. 가진 것이 없기에, 고맙다는 말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만을 전하며, 서울까지 올라왔다. 이남의 공기는 그동안 내가 살았던 함흥의 공기와 다르게 느껴졌다. 공기마저 자유롭다고 느꼈다면 나의 지나친 생각일지는 몰라도 그 당시 나는 힘든 월남을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로 향했다.

- 그리던 뉘음을 만나 -

나는 월남하기 3년 전인 1945년 8·15해방 직후, 서울 고모집에 약 3개월 동안 기거한 일이 있어 비교적 서울지리

에는 익숙한 편이었다. 그래서 서대문 북 아현동에 있는 고모집에 가기 위해 서대문행 전차를 종로에서 타고 서대문 정류장에서 막 내리려 하는데 그때 그 전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형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함흥이 고향인 형제가 서울 서대문 한복판 길거리에서 만난 것이다. 형님을 보자 울음이 왈칵 터지면서 형의 어깨에 파묻혀서 나는 한참 동안 월남 중의 고생과 설움,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얼마 후 나는 고모님댁에 도착하였고 그 간의 많은 고생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48년 11월 1일, 내가 고향을 떠나 11월 7일 서울에 도착한 지난 일주일의 시간은 불안과 긴장, 그리고 공포와 죽음의 기로에서 절망감의 연속이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다. 7월 동안의 시간은 그 동안 살아왔던 18년과도 세월과도 맞먹는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후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요, 커다란 사건이 되었다.

빨간 마후라의 혼 (23호에 이어서)

등지 안에서 보라매 알을 품은 지 어언 4년간 그 껍질을 깨고 나와 새 생명이 호흡하며 가쁜 숨결을 불어 쉬네.

어미에게만 먹이를 얻어먹다가 이제 등지를 떠나야 하네. 앙약한 날갯짓으로 창공을 휘어 오르니 나의 목에는 부드러운 빨간 천이 드리워지네.

억세고 큰 날개를 가지려고 산과 강, 들과 산맥을 분주히 넘나들며 天地를 건너뛰나니 鳥人の 고통과 맘. 아픔은 우리들에게는 달콤한 생명수리네.

땀이 질 듯 표호 속에 창공을 박차 오르는 海東靑 보라매여! 나날이 이어질수록 송송한 맘과 인고의 밤들들이 땀처럼 붉은 빛깔의 마후라가 되었나니

우리는 불사조! 아름답운 이 龍土 愛된 우리들을 굴복시키고야 말리라. 내 한목숨 던져쳐라도 모두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파수관의 고독과 회색이 괴롭힐지라도 자위로 꼭 조인 고통의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몸짓으로 서로 포용하여, 형제자매 동포가 하나로 얼싸안고 오랜 아픈 상처를 기쁨의 약으로 치유하라라.

빨간 마후라여! 언젠나 우리의 함께, 우리사람 안에서 긴 역사의 순결 속에, 그 열이 붉게 물들어 하나로 이어진, 정열과 투혼의 상징이여라.

자! 전투 조종사들이여! 인고의 쓴잔을 높이 들어 통일과 축배를 위해 기꺼이 마셔 두리라.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李永濤(공사 19기)

# 8萬大藏經 死守

故 김영환 장군(金英煥 將軍)은 전투조종사로서의 훌륭한 업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할까 한다.

金 將軍은 1920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출생으로 경기중학을 거쳐 일본관서대학 항공과에 재학 중, 학병으로 나가 포병 소위로 합참지구에 주둔하다 8·15 해방이 되었다. 해방이 되자 소련군은 일본군을 모조리 소련으로 끌고 가게 되자, 자기는 한국인이니 갈 수 없다 하여 물리치고, 38사선을 넘어 귀경하자 곧 친형인 김집렬 장군(金貞烈 將軍)과 함께 우리 공군 창설과 육성을 위해 신명을 다 바쳤다.

특히, 故 김영환 장군은 6·25 동안 당시 해인사(海印寺)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 제32호 및 제52호의 팔만대장경이 오늘날까지 무사히 보존된 것은 우리 金 將軍의 숨은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당시엔 작전이 한·미 합동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가야산 공비토벌을 하는 과정에서 적이 은거해 있는 해인사를 왜 폭격하지 않느냐, 작전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미 공군단장의 추궁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산천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귀중한 문화재산은 바로 우리의 정신과 혼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값있는 보물인 만큼, 그 당시 공비 몇 백명도 바꿀 수 없었던 명석한 판단을 한 故 김영환 장군의 업적을 높이 기려 투혼의 정신을 후대에 길이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그 때, 근접지원에 출격할 편대는 비행지휘관인 김영환 대령이 1번기에, 2번기에는 박희동 중령, 3번기에는 강호균 중령, 4번기에는 서상삼 중령으로 편성되었다. 정찰기의 무전훈련은 가야산 동남으로 산줄기와 산줄기 계속 사이에서 자리잡고 있는 해인寺와 그 인근공비 소굴을 소사 폭격함으로써, 우리 지상군을 밀집지휘하라는 지시였다. 「모스키기(정찰기)」가 계곡을 따라 급강하하여 정찰해 보니 사할 주변에 많은 공비와 숲속에 위장된 참호와 진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때 출격할 편대의 무장상태는 5백 파운드 폭탄 2발, 5인치로 보켓

탄 6발, 케리바 50, 기관총 6문과 총탄 1,800발씩 장비하고 있었고, 1번기 정찰기만 750파운드 네이팜탄을 적체하였다.

1951년 9월 18일 오전 6시 30분 아침식사를 끝나자마자, 지상군 부대로부터 공중근접지원 요청을 받았다. 그 당시 북한 인민군이 6·25 발발 이후 3개월만에 퇴각하면서 일부 남은 패잔병들이 남한 각지의 산악지대에 숨어서 주민들에게 막심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 이 때 낙오한 인민군이 지리산에 약 6,500명, 가야산에 900여 명이나 되었다.

드디어 정찰기로부터 공격개시를 표지하는 흰색 연막탄이 목표물을 가리키는데, 바로 해인사 대수광전 앞마당에 투하되었다. 사실 네이팜탄 한 발이면 해인사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 때 장기가 급상승 선회하면서 오기에게 명령하기를 「각기는 편대장의 뒤를 단종진 대령으로 따르되, 편대장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폭탄과 로켓탄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요기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기총만으로 사할 주변의 능선을 소사 공격하는 것이었다. 순간, 다른 편대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며칠 전에도 사할 주변을 저공비행으로 위협사격을 하다가 적에게 피탄되어 장기가 화염에 싸인 비행기를 강변에 겨우 불시착했던 악몽이 되살아나 전선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사할 주변 숲속에 모여 앉은 공비들이 폭탄과 로켓탄을 사용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비행기 저고도로 날아들어도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폭탄의 세례를 퍼붓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고 하였다.

팔만대장경은 이렇듯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호국의 열의 담긴 문화유산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 보존되어 있음은 故 김영환 장군을 비롯한 이 작전에 참여한 모든 전투조종사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이 빨간 마후라가 어떻게 보면 우연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우연만이 아니라 필연적인 조건에 잘 맞았으므로 합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빨간 마후라의 意味

첫째는, 정열과 투혼의 상징으로 일치단결을 뜻한다.

둘째는, 출격 전에 꼭 승리해야 한다는 군장(軍裝)의 치장(治裝)과 마음 각오이며, 공중전에서 적과 조우시 위협 내지 과시를 상징한다.

셋째는, 적지나 우군지역에서 비상탈출로 인한 조난시 구조 신호용이다.

첫째의 의미는,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해 우리 인들이 사상에서 인체 생리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진 신체구조의 조건들을 극복하고, 하늘을 나르는 조인복의 변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땀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

였다 것은 포기하지 않고 갈등과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낸 투혼의 정신력 없이는 인공의 쓴잔을 기꺼이 마시지 못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조종사들의 공통적인 맥락이 이어지는 것은, 우선 비행을 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전의 정신이 없이는 그 활력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된 기록과 아울러, 역사적 승결속에 우리 나라 조종사의 뿌리를 찾아 그 맥락이 이어지는 조종사의 혼을 재인식하여 우리의 지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20년의 독립신문을 보면,

미국에서 독립군 출신이 우리나라 최초의 조종사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독립신문 1920년 4월 17일자에는 6인의 독립비행사가 같은 해 2월 5일 태극마크가 새겨진 비행기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비행학교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하였음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은 러시아 연해주에 무장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최초의 조종사는 이용선(李用善), 이 초(李超), 오임하(吳林河), 이용근(李用根), 한창근(韓章鎭), 장병훈(張炳勳) 6명의 독립군이였다.

기록에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동경에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자."는 결의를 되새기며 맹훈련에 임했다고 한다. 동경까지의 폭격은 살아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닌, 살신보국의 단호한 의지를 뜻한 것이다. 일제통치하에 우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보여준 강인한 민족정신과 참의적인 주체애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 당시 일본은 공중력이 전무 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선구자적이며 독창적인 그 혼이 신전에서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70여 년의 지난 그 승결과 고귀하고 순교자적인 정신력을 우리 공군 조종사들도 새롭게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또 1950년 6·25전쟁 발발시

한국 공군의 사정은 어땠는가? 그 당시 공군이 보유한 비행기는 L-4, L-5 등의 경비행기 몇 대와 국민의 성금으로 구입한 T-6, 일명 건국기 10대를 포함 훈련기 20여 대뿐이었으며,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미 긴급 요청으로 2차대전시 명성을 떨쳤던 F-51 무스타 전투기 10대를 보급받아 휴전시까지 129명의 전투조종사가 7천8백여 회의 출격의 공적을 쌓았으며, 그 중 39명은 100회 이상 출격하여 혈투를 벌였던, 선배 전투조종사의 불타는 투지가 아니었던가? 그 조종사 중에서 유치곤 장군은 203회 출격하여 수많은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지만, 승호리 철교 폭파 공적은 너무나 유명하여 바로 「빨간 마후라」 영화의 핵심주제가 아닌가. 승호리 철교의 평양 남동쪽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보급루트로, 미 공군 전투기 36대가 투입되어 폭파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공중 공격하기에 아주 까다로운 목표였으며 지형적으로도 위험스러운 장소를 받았던 것으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유치곤 장군은 빙속과 같은 적 지상 포화를 뚫고 단 한 번의 출격으로 철교를 폭파함으로써 빨간 마후라의 신화를 이룩하였다.

## 빨간 마후라의 魂

「빨간 마후라」의 혼에는 불사조의 승결이 스며 있어,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후배들의 몫이 아닌가?

첫 번째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치단결」인데, 이것은 바로 편대정신(Formation Spirit)을 뜻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제와 일치된 호흡과 손발이 잘 이루어져야 공중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첨단과학 기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바탕은 편대상호간에 이심전심이 잘 통해야 하며, 한치의 오차나 의사소통이 잘못되었을 시에는 우군끼리 서로 막대한 지장 내지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항공작전의 원활한 협조체제와 일사불란한 일치단결은 전투조종사들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 빨간 마후라의 의미는 군장의 치장이다. 필승의 신념으로 적과 남에게 과시의 뜻으로도 여겨지지만, 내면의 뜻은 빨간 마후라다운 뒷받침이 되어 그 고귀한 투혼에 맞먹는 전투조종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군장(軍裝)은 항공기에 장착되는 최첨단무기의 다양한 무장장착이며, 치장(治裝)은 이 무장을 적시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량이라고 할 수 있다. 겁먹기보다는 용맹스럽게, 비겁하기보다는 당당하여야 한다. 적을 일격에 격추시킬 실력과 기량이 부족하다면 용맹이 오히려 만용으로 되고 말 것이며, 지기가 꼭 있어야 할 위치가 희생자를 강요하고 위험을 예견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또 전투조종사는 진술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 마치 성직자와 같은 진실이 바탕되어야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한 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한 예로 비행훈련 기동 중에 무리한 기동으로, 제한치를 넘은 상태(일명 Over "G")의 순간적인 실수를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버리면(버튼만 누르면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 후유증이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닥쳐 불행한 일을 초래할지 모른다. 항공기 구조에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항공기를 재검비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빨간 색깔이 흰색이듯이 조종사도 솔직 담백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즉, 빨간 마후라의 명에만 하늘처럼 크고 담대하고 맑은 항공처럼 투명하며, 고귀한 희생을 마다 않고 예머낸 정신(Airman Ship)의 전통을 이어나갈 책임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 빨간 마후라는 눈에 잘 나타나는 색상이므로, 소심한 태도로 숨을 수도 없으며, 임기응변으로 적당하게 넘아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나 당당하고 밝고 의기투합이 빨간 마후라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인 것이다.

세 번째, 빨간 마후라의 의미는 비행 중 비상탈출 후 조난을 당했을 때 우군지역이든 적지이든 간에 생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종사로서 비행 중에 낙하산을 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도 모든 조종사들은 마음에 접어 두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평생 한 번 있을까 하는 한순간을 위하여 공군에서 조종사들의 생존훈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교육부대가 1951년에 한미 연합으로 창설되어 6·25 전쟁 중 눈부신 활약상과 군번

(14면에서 이음)

없는 영웅과 같은 고귀한 희생  
을 치렀던 무용담, 정보교육과  
정 중에 밤늦게까지 교관님으로  
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공군비화  
록에 기록되어 그 공적을 기리  
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군에서는 「낙하산 점프훈련  
타워」(34ft Mock Tower)를 1953  
년에 개축하여 인간이 공포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높이인  
34ft(10.4m)의 타워설치로 오류  
중 훈련장에서 조종사들에게 실  
시해 왔다. 아울러 도피탈출 훈  
련도 겸하여 실시하였으므로 특  
수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  
고 이 훈련을 이수하였다 하려  
도 주기적으로 인천 앞바다의  
섬에서 실시하여 왔다. 팔미도,  
데미도, 영종도 섬에서의 주된  
훈련은, 낙하산 강하훈련과 생환  
훈련으로 적지에서 도피탈출  
방법과 생존을 위한 음식을 구  
득의 사례를 듣고 배웠으며, 지  
상방법으로는 독도법과 도치 및  
탈출도 반드시 생환에 성공하는  
방법들을 훈련하였다. 불가피하  
게 포로가 되었을 시 신문자환  
법에 절차를 숙지하였고, 신약훈  
련으로는 등반과 도강, 하강 등  
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요령과  
훈련, 그리고 해상에 낙하되었을  
시 생존과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의 여러 가지 과정 중  
에 나는 비교적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뱀고기 먹는 것이 제일  
큰 고역이었다.

경험이 없는 조종사라면 누구  
나 뱀이 제일 징그럽고 거부  
한다. 뱀고기를 일부러 먹이는

이유는, 만약 적지에서 먹을 것  
이 없을 때 모든 독성이 없는  
동·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뱀만  
먹을 줄 알면 무엇이든지 가리  
지 않고 영양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종사가 전쟁  
중에 적지에 떨어졌다면, 생명을  
구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보누출이 안된다고 보장할 수  
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하한 수  
단과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생포  
가 되지 않는 것이 최상이기 때  
문에, 도피탈출의 훈련을 강도  
높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  
난당했을 때 뱀간 마후라를 구  
조 신호음으로 직접 사용할 수  
도 있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  
각에도 지나지 않고, 실전과 같  
은 도피탈출 훈련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확고히 하기 위  
해서 구조음의 마후라 활용과  
더불어 강도 높은 생활훈련의  
땀방울이 배어져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뱀간 마후라 혼의  
에너지, 즉 불굴의 정신력은 어  
디서 나올까? 그것은 '사람'  
하는 데서 그 '핵'이 있음을 명심  
하고 있다. 우리 전투조종사들  
은 스스로 뱀간 마후라의 혼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할 때 강렬한 정신력이 솟  
구질 것이다. 물질은 쓰면 쓸수  
록 소비되어 적어지지만, 마음  
과 정신은 쓰면 쓸수록 증폭이  
되어 크게 불어남을 음미하여  
보자.

“뱀간 마후라”는 전투조종사  
들과 그를 성원해주는 많은 사  
원들의 뜨거운 사랑 안에 영입  
한 불사조의 상징이 되어 길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 尉官時節 追憶

李 宰 律(공사 971)

#### 헬멧은 럭비공이 아 닌데

제32전술정찰비행대대는 作  
司 直轄部隊로서 새로 赴任한  
大隊長은 단독으로(Alone) 무  
장없이(Unarmed), 두려움없이  
(Unafraid)이라는 大隊 口號  
에 맞게 精銳部隊를 만들기  
위해 努力하는 매우 훌륭한  
指揮官(中領 李智永, 공사 2  
기)이었다.

1965년 여름 토요일 오후 무  
더운 날씨, 비상긴급출동 조종  
사를 제외하고 퇴근하려고 하  
는 중 긴급출동 벨이 울렸다. 1  
개월에 한두 번 있는 긴급 출  
동이다.

15분 대기 편조는(소령 徐應  
錫 5기, 중위 金龍植 11기) 대  
기실에서 제비같이 날치게 駐機  
場으로 뛰어 간다.

항공장구는(파라슈트, 헬멧,  
kneeboard, 航空地圖 등) 이미  
계획된 조종사 것으로 항공기에  
준비되어 있다.

大隊長은 “내가 출동하여야  
지”하면서 肉重한 몸으로 뒤따  
라 뛰어간다.

퇴근하지 않은 조종사들도 거  
들어 주기위해 함께 된다.

駐機場까지의 거리는 80M  
정도.

編組된 조종사가 시동을 걸려  
고 하는 순간 내려 “내가 出動  
하지”하고 大隊長은 명령한다.

작전가능 훈련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조종사들은 조바  
심한다. 大隊長은 비행기에 탑  
승하면서 장구하고 소리치른다.  
장구반 요원은 이미 大隊장보  
다 빨리 뛰어 항공기에 도착하  
였다. 大隊長의 항공장구로 交  
替한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파라슈트를 매고 大隊장이 헬  
멧을 쓰려고 하니 맞지 않아  
“내것 아니야”하면서 밑으로  
던진다. 頭上이 커 보통 헬멧은  
맞지 않는다.

마음 조리고 밑에 있던 조종  
사는 헬멧을 받는다. 10여 개  
이상의 헬멧을 교체하는 光景은  
럭비선수의 訓練場面 같았다.  
잘 던지고 잘 받는다. 생도 시  
절 럭비대표선수였으니...

시간이 자꾸 흐르니 좀 맞지  
않는 헬멧을 쓰고 始動 후 빠른  
속도로 완주한다.

32대대 駐機場은 이륙반대  
방향이라 5분은 족히 완주하여  
야 이륙한다.

지상에 있는 대대원은 이륙한  
비행기를 安堵의 한숨으로 바라  
본다. 그러나 대대원은 不安하  
기 짝이 없다. 離陸遲延 때문이  
었다. 다행히 僚機가 優秀한 조  
종사였기에 任務遂行에는 그리  
연려가 되지 않았다. 이륙시간  
을 점검하니 무려 10분을 超過  
하였다. 작전사령부(TACC)에서  
는 몇 시에 이륙했느냐고 아주  
성이다. 이륙 후 얼마보니 제우  
도 남방 100마일 밖에 향해하  
는 과 선별 식별 및 사진촬영  
임무인 것으로 기억된다.

장구반 요원은 대대장 헬멧을  
다시 찾는다. 없다.

전 대대원의 장구를 하나하나  
점검한다. 대대장 것만 없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대장  
의 헬멧을 점검하니 대대장의  
헬멧이었다.

처음 裝具班 요원이 준비한  
헬멧이었다. 출동 항공기는 한  
여름 야의 駐機場에 대기하고  
있어서 항공기 착성은 매우  
뜨거웠고 既 計劃 編組된 조  
종사가 아니었기에 조급한 마  
음이 앞서 있었다. 그러나 唐  
慌산수밖에, 任務는 성공적으  
로 遂行한 것으로 요기로부터  
들었다.

대대장은 임무수행 후 作戰  
司 司令部에 보고한다. 不動姿勢  
로 네 네 하는 것을 보면 사령  
관인 것 같다(司 司令官 少將 金  
斗萬).

대대장의 緊急出動으로 토요  
일 오후 늦게까지 退勤하지 못  
하고 기다리는 조종사에게 아무  
말이 없이 퇴근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그리 편지 않는 것 같다.

전 대대 조종사들도 즐거운  
주말이 되지 못하고 쓸쓸하게  
퇴근 버스에 탄다. 任務 遂行結  
果보다 離陸遲延에 대한 自責인  
것 같다.

責任感과 功名心이 많은 분이  
라 지금 생각하면 自業自得이라  
할까...

#### 윗분의 띠를 알고 초대하여야지

새로 부임한 大隊長(中領 李  
智永)은 赴任 後 將兵 福祉 및  
士氣 昂揚 次元에서 토기를 대  
대적으로 飼育하였다.

대대는 비행단 한 요원에  
자리잡고 있고 정비 요원들이  
많아 토기 飼育하기에는 안성맞  
춤이었다.

늦 가을에 10전비 指揮官  
參謀를 招待하고 전 장병이 야  
외에서 토기 굶기 바베큐를 하  
였다.

그러나 초대된 團長(准將 周  
永福)은 별로 탐탁치 않은 기  
분으로 좀 일찍 수행한 참모를 대  
동하고 자리를 었다.

참모들에게 말하기를 “李智永  
이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해”  
참모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단장이 토끼띠 인줄  
알고 破顏大笑하면서 대대장에  
게 귀뜸을 하였다.

대대장은 이런 내용을 대대  
조종사에게 전하면서 이제 저  
양반 밑에서 죽었구나 하면서  
후방지원 받는 것도 끝났지 하  
였다. 본의가 아니니 하면서  
잘 받들지 하면서 안도하는 것  
같다.

그러나 10전비에 더부살이하  
는 대대원의 마음은 그리 편하  
지 않았다.

그런데 그 10년 후에, 한 분  
은 參謀總長이고 한 분은 情  
報參謀副團長으로서 總長을 보  
좌하고 있으니 무스광스러웠던  
해프닝과는 별개의 일인  
것 같다.

그러나 후배 여러분 윗분(上  
官)을 초대시, 그 주 메뉴가 무  
엇인지, 혹시 초대된 상관의 띠  
와 관계가 있는지 點檢하시기  
를...

그러면 무엇으로 주 메뉴로  
정하지?

### 통일 한국의 미래상

丁 海 瑛(공사 1기)

UN장시하의

총선거로 세운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의 감격

하늘을 찌를듯

겨레의 가슴속에

솟구쳐 솟았던 비전-한국

미수복지구의 의석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기다린 세월 속에

인격은 후폐하고

태양은 갠데 없네

어느새 자유의 후예들 세상

파도치듯 먹여 왔나니

면족사적 정통성을

생명중 살아 꽃피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생활에 담아 노래하며

언제나 새롭고 이국거리는

민주시민정신의 몽랑로에는

당찬 후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니니

이는 비전-한국의 잣대요

통일한국의 미래요 꿈이 어니

# 成功하는 人間關係

曹 正 基(공사 7기)

##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면 현재의 태도를 알아야 한다.

성공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론보다 행동이 우선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우는 자기개조가 필요하다. 당신은 자기기를 개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가?

### 1. 나쁜 태도가 나쁜 성격 을 만든다.

정신의 건강 상태는 서역에 그대로 반영한다. 좋은 성격이란 어떤 것인가? 분수에 넘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있다. 출세를 하면 행복할텐데... 돈 버락을 맞으면 행복할텐데... 누구누구와 결혼했으면 행복할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보다 태도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한 그것은 순간적인 이유일 뿐이지 지속적인 사유가 못된다.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신념 있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도 불평 불만을 갖고 투덜거리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영국에 망명해 온 '오제니' 여왕이 오페라 감상을 했다. 그들은 열렬히 환호하는 관중에게 답례하기 위해 로열박스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수년동안 공포정치와 의심 속에서 살아온 오제니 여왕은 조심스럽게 자기의 좌석이 제자리에 있는가를 뒤돌아 확인하고 앉았고, 빅토리아 여왕은 그냥 앉았다. 바로 자기의 경험이 중요하다.

### 2. 바람직한 태도를 만든다. 자기의 태도를 바꾸려면 먼

저 현재의 태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객관화 시켜본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겠다면 제3자의 눈을 통해서 조언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랄적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설정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다.

가. 원숙한 태도의 설정  
어린이는 투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밥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린이처럼 안달을 하거나 보채지 말라. 정신적으로 사물을 넓게 바라보고 자기의 감정을 존중해 나가며 참을 수 있는 태도, 유쾌하면서도 협조적인 태도가 당신의 성공을 도와주는 원숙한 태도이다.

나. 낙관적인 태도의 설정  
중동에 나가있는 태평양 건설의 기능공에게 편지가 한 통 날아왔다. "우리 나라 기능공은 세계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더위에도 추위에도 잘 적응하기 때문이며 일의 능률이 상당히 뛰어나합니다. 추운 나라에서 온 기능공들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더위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적지에서 싸울 때에는 미리 적응훈련을 받는다. 낙관적인 사람은 적응력이 좋다. 낙관적인 사람은 열의와 활기, 자신감이 넘친다. 낙관적인 사람의 표정은 밝고 여유가 있다. 낙관적인 사람은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고 180도 뒤돌아서 태양을 바라본다. 낙관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향하

여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 한 손가락이 상대방을 세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 객관적인 태도의 설정  
모회사의 사훈 첫 번째가 '적극적으로 일하자'이다. 나 자신이 성공하느냐 아니냐의 첫 번째 관문은 부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부정적인 태도는 3~4세에 절정에 달한다. 이 무렵 무분별하게 거부함으로써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특권(?)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불행하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정정당당히 대결하지 못하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무턱대고 적대시하며 방해하고 혹평하며 투서하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태도가 그래서 성공의 지름길인 되는 것이다.

### 3. 태도변화의 수칙

가. 마음의 문을 연다 : 내 것은 옳고 상대방의 것은 그르다는 생각을 버려라. 마음의 문을 열면 교류가 된다.

나. 자기의 개조능력을 믿는다 : 하면 된다. 자신이란 남이 가르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얻어진다.

다. 한번에 한가지씩 한다 : 많은 단점이 있어도 단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해서 안 된다. 한번에 한가지씩 하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라. 독서를 생활화한다 : 자기개조, 자기완성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다. 이것이 나의 후원자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

마. 자기에겐 암시를 한다 : 긴장을 풀고 매일 1분씩 명상을 해라. 그곳에서 자기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라. 기적 같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바. 자기를 분석한다 : 자기 자신을 통찰하면서 하나하나 원인을 찾아낸다. 그리고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다.

사. 역할연기(role playing)를 한다 : 자기인생의 배역을 만들고 원하는 타입의 인물을 그리며 대사까지 만든다. 혼자 하기가 힘들면 삼사, 동료, 가

족 누구나 상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할 때 그 역할의 주인공과 같은 인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 4. 成功的인 人間關係의 原則(미국 스왈츠 교수)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으로 얘기하는 감정의 移入이 전제되어야 한다.

◆ 지능지수보다 감정지수를 높여라.

◆ 상대로 하여금 움직이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름을 불러준다.

◆ 상대방을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않는다.

◆ 효과적으로 끝내는 터치를 해준다.

◆ 상대가 예기치 못할 때 기대하는 것을 준다.

◆ 상대방이 감추려는 비밀을 지켜준다.

◆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카네기).

◆ 자신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 분위기에 맞게 대화를 잘 해 주어야 한다.

◆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여 강조해 주어야 한다.

◆ 상대방에 대하여 미소짓는 표정을 지어야 한다.

◆ 결정하는 태도로 진지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 <약 령>

- 공사(7기) 임관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Golden State University 教授
- 전 공사고 및 공군대학 교수 겸 전 참모
- 현 부산여자대학 교수 겸 산업교육연구소장

### (9면에서 이음)

구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 지역에 가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통북아 및 아세안지역에 공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항공세력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독자 출축이나 대테러전에서 항공세력 사용의 예로 걸프전, 코소보사태, 그리고 아프간폭격을 들 수 있다.

### 2. 獨裁者 逐出과 航空勢力

우선 미국이 국제분쟁과 독재자 견제를 위한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세력을 사용한 예는 1991년 걸프전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이라크의 핵 개발, 생화학무기 개발, 테러지원을 폐기 내지 중지시키려고 시도하던 중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이를 계기로 1991년 1월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다국적군의 이름하에 육·해·공군 등 50만의 병력이 합동한 5일간의 전쟁에서 적군에 의한 전사자 한 사람 없이 이라크군을 격퇴시켰다. 이

러한 전과가 가능했던 것은 항공세력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의 정치 목표는 이라크를 완전 점령하거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견제하에 후세인과 그 정권을 존속시키면서 이라크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라크가 더 이상 군사도발과 진출을 하지 못하게 남부와 북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금까지 강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시 항공전력으로서 강력히 대응하여 오면서 정치목표를 달성하여 오고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1999년 코소보 사태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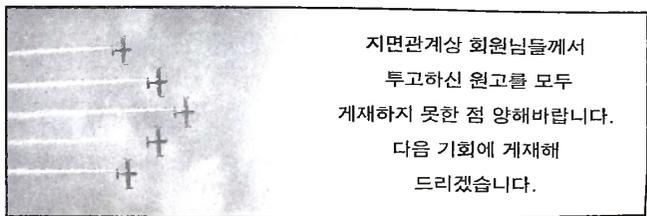
코소보 사태는 1999년 유고의 독재자 밀로세비치가 알바니아인종 지역인 코소보를 점령하여 알바니아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축출하자 미국을 주축으로 한 NATO의 항공기들이 78일간 폭격을 한 결과 밀로세비치는 정권에서 축출되고 그의 독재체제는 붕괴되었다. 이 코소보 사태 역시 한 사람의

전사자도 내지 않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세 번째는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항공기 테러가 발생하자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대테러전쟁이 시작되었다. 9월 11일 미국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성에 대한 항공기 테러에 의한 대참사는 빈 라덴이 배후 조종자였고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그를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간에 폭격을 하였다. 폭격 5주만에 탈레반 정권은 수도 카불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탈레반의 붕괴와 빈 라덴의 운명은 시간문제로 남아 있다. 미국의

정치적 목표의 달성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도 전사자 한 사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항공세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분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력은 항공세력이라는 것이 21세기 시작부터 잘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남북 관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통일 후의 미래 국가전략을 수립할에 있어서는 항공세력을 단순히 안보적 측면에서 군사력의 한 요소로 다룰 것이 아니라 통일 후의 미래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개념적립을 새로이 해야 한다.



# 星武臺에서 본 瞻星臺



李 源 天(공사 57기)

## 일록진 명함을 밝힌다.

瞻星臺(첨성대)라 하면 흔히 경주첨성대 하나뿐이고 그것은 천체를 관측한 동양 또는 세계 최고(Oldest)의 천문대(Observatory) 정도로 알고 있으나 사실 첨성대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아니고 경주첨성대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들은 첨성대가 아니었다.

### 1. 慶州 첨성대

경주첨성대는 삼국유사 선덕왕 지기삼사조 끝에 추록하기를 「良志師 別記에 결입금때(AD 632-646)에 돌을 다듬어 첨성대를 쌓았다 라고 했다」는 것인데 Guinness Book에서는 선덕여왕 원(632년)에 축조했다라 했고 한국지명총람 등에서는 선덕여왕 16년인 647년에 지었다고 기술했다. 諸元도 문헌에 따라 측정치가 다른데 1934년 8월 27일부로 국보 31호로 관리되어 왔으나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놀라깝기도 하다. 아무튼 7세기 초에 경주시 안왕릉 839-1번에는 첨성대가 들어섬에 따라 지금까지 그 지역을 비롯거리·비둘거리라고 부르니 이는 첨성대거리·성대거리의 고어 비둘거리의 와전이다.

경주첨성대는 936년 신라가 망하기 이전부터 기능이 멎고 방치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약 430년 뒤인 1275년에 고려의 일연선사가 삼국유사에 기록했고 15세기 말경에 쓰인 동국여지승람에는 「위는 方形 아래는 원형이고 높이는 19자인데 그 중간을 턱인 사람이 가운데를 경유해서 오르내려서 천문을 살펴게 된다」라고 상세히 추록하고 「누가 오늘 천체를 살펴라」라는 안축(1287-1348)의 시도 실었으니 고려 중기부터는 첨성대를 천문대로 이해해 왔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민수 씨도 삼국유사국역본의 첨성대 註에서 「신라 선덕여왕 때 세운 동양최고의 천문대」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 198년도관 기념사북에는 위의 첨성대 사진을 실고, 「The oldest observatory building extant in this one in south Korea, which was built in 632 AD」라 했으니 「현존의 세계 최고 천문대」로 소개한 것이니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말이다.

### 2. 金海 첨성대

이 첨성대는 김해시 진례면

신안에 고적으로 남아 있는 토성인 進禮城(진례성) 뒤편 산의 봉오리에 가락국의 태자가 천문을 보려고 쌓은 구조물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첨성대이다. 진례성은 김해부 서쪽 35리에 있는 고적인데, 신라 때에 金仁으로써 진례성의 모든 군사를 정비토록 했다고 한다. 김인 장군이 쌓았다는 설도 있으나 그의 생존 연대를 알 수 없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첨성대가 경주첨성대보다 앞설 가능성이 없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 3. 湄山 첨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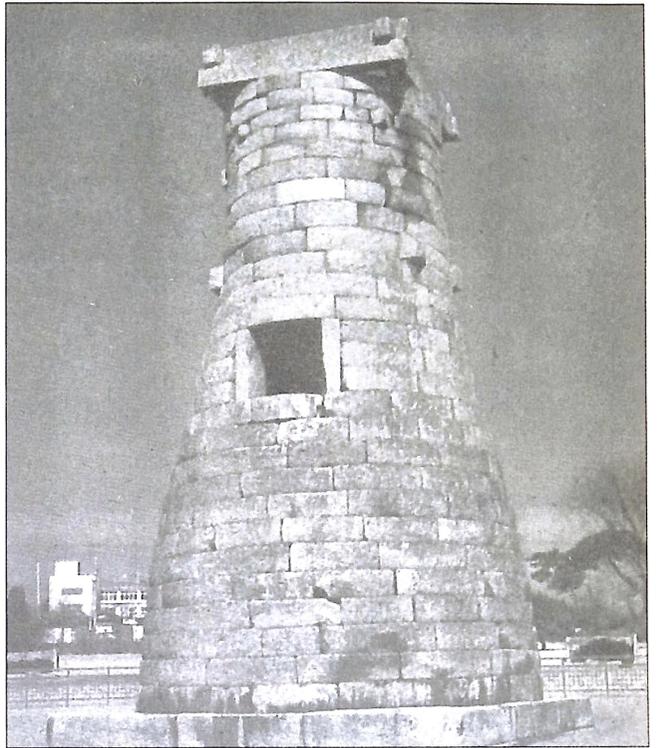
이 첨성대는 충북 괴산군 화양리 金沙潭(금사담)이라는 못 뒤에 탑처럼 솟은 자연암이다. 이 첨성대는 중간에 명나라의 신종(재위 1573-1620)과 의종(재위 1628-1644)과 우리나라의 선조대왕(재위 1568-1608)의 친필이 새겨져 있다고 하나 미상하다. 이 바위가 첨성대로 쓰인 연대는 미상이나 고대의 것이 아니라면 그 왕들의 제세시에 생겼을 것이니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으로 생겼을 것으로 측정된다.

### 4. 開城 첨성대

이 첨성대는 고려의 수도 개성의 만월대 경내에 남아 있는데, 큰 장대석을 다듬어서 정방향의 4귀에 박고 그 위에 4개의 장대석을 얹어 걸치어 귀를 맞추고 그 위에 관석을 깔아 평탄하게 만든 단층 구조만 남은 것이다.

### 5. 平壤 첨성대

이상의 4곳 지명은 하나같이 첨성대다. 근래에 유인촌 씨가 KBS 1TV의 역사스페셜에서 경주첨성대를 다룬 직후인 2002년 2월 22일에는 김기흥 교수가 KBS 1TV의 N세대특강에서 첨성대를 다루었는데 양자의 내용이 엇비슷했다. 첨성대의 기단석의 쌓임은 원형이 2계단이고 몸통은 원형 27계단이며 상부는 #자형 2계층이니 모두 31계층인데, 땅과 하늘을 각기 1계층으로 치면 모두 33계층의 우물이니 이것이 바로 불교의 도리천, 곧 33천이라는 주장이 나 몇대로 늘린 33계층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제석천이라고도 하는 육계지천의 두 번째인 수경구조의 도리천, 곧 33천이니 가당한 말인가. 또 경주첨성대가 우리의 옛 무속에서 보이는 솟대·세계수·통천Pole이나 신라시조 거서간의 비알영이 나왔다든 알영정 혹은 고려의 의조비가 죽어 잉어로 化하여 동해의 용궁으로 귀소했다는 개경의 대정과 같은 재생화귀의 우물이라는 식의 함의적 암시에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이 고수의 특징이었으니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지금(2002년 4월 18일 01시 18분) KBS 1TV의 서바이벌 역사퀴즈에서 충무공의 전승지(수물)오랑의 뜻을 설명하며 띠이 불결량자라고 했으니 울돌목 불이 울겠다. 앞에서 본 첨성대는 나라의 수도나 성



과 왕들과 유관하다. 이것은 첨성대가 국방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그리고 경주의 첨성대 거리를 비롯거리라 함은 성대거리의 고어이다. 별(비)성은 본래 불(火)의 파생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첨성대는 서울 남산에 복원해 놓은 햇불을 집히는 아궁과 신호의 굴뚝이 붙은 화(火)와 꼭 같은 모양이다. 이것을 지명에는 鶴자의 음(학)을 빌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 용어는 햇불독·돈대·봉화대이다. 사진에서 「돈대는 평지보다 높직한 평지」라 했고 봉화대는 봉화독이라 하고, 봉화독은 봉화대라고 들렸으니, 그것을 보고 누가 햇불을 올리는 부화(火吐)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아무튼 고려의 서북면 병마사 조진악 장군이 1149년에 정비한 8로햇불망은 우리 반도의 초기경보망(EWS)이었으나 1890년에 모르스부호통신에 밀리어 폐지되었으나 전국에 600여개소가 유지되어 많은 햇불계 지명을 남기었다. 그래서 토자는 지명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알아보자.

湄山면 : 성주군의 고호, 고령군의 한 면, 모두 햇불계의 지명  
별티)星峙·묵은 별티 : 성주군 소재 모두 햇불산의 명칭이다.

이산 : 성주군 소재 : 본래 기우제 산이었으므로 별무리(乞水山)〈별미〉湄山이라 했으니, 湄은 별(乞)에 훈차된 경우다.

湄山 : 전남 단양군 남면, 정철이 星山別曲을 쓴 곳, 역시 햇불계로 추정됨.

이와 같이 지명에 쓰인 토자는 햇불, 곧 불(火)에 훈차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병선 교수는 湄山의 湄을 부리(峯)의 표기라 했으니 의문이다. 따라서 첨성대는 사방에서 들어온 햇불을 감시하는 단말이었다. 서울의 궁정에서도 남산에

모이는 햇불을 감시했기에 남산을 木窟山(목벽산)이라 했고 같은 산명이 평양에도 있게 되었으리라. 벽진가야 터에 남은 맞채퇴)영봉산·성산가야와 대가야의 고터에 있는 봉두(새 : 연산)라는 지명도 모두 봉수의 단말이었을 것이다. 고령군 성산면의 윤교동은 굴담비(성산별)라는 뜻인데 「별」이 「비」로 변한 예이니, 불·별(별절다)을 「비」로 읽고 성대를 비독이라 호칭한 것은 흡사한 경우다. 햇불보다 규모가 작은 평안화는 우리가 중국보다 수백년 앞선 듯하나 지명 관계로 접어 두고 사막의 나라사우디왕국에 가면 마을 앞에 높은 망루가 있음을 흔히 보았으리라. 그 누대가 도적들의 내침을 망보는 곳이니 경주첨성대와 그 기능이 비슷한 구조물이다. 자고로 인간이 높은 곳에서 앞 뒤 멀리 조감(Bridsey view)하는 첨망지사는 매우 중요했다. 국조 단군·백제의 운조·신라6촌의 부족장들이 산위에 올라 4방을 조감하여 살만한 땅을 골라 놓고 내려와 협지를 답사하여 정착한다. 이렇게 산위에서 살만한 땅을 불색해 놓고 내려온 부족장을 나리(陔)라 한 것이 오늘날 높은 사람의 경칭으로 쓰이니 일러오는 더욱 정성스러운 고나리(어성기)다. 이들이 바로 우리 부족국의 군장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나-리! 오늘날 짐을 치고 인공위성을 올리는 일도 그 핵심의 하나가 멀리 내다 보기 위한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첨성대는 햇불을 최종적으로 받는 군사 시설이었는데 경주와 개성첨성대는 궁성에서 운용했을 것이고 김해첨성대는 진례성주가 관장했을 것이며 괴산첨성대는 전선사령부가 쓰는 햇불접수대로 추정된다.

물론 괴산군의 군병 자체도 햇불(非)회내의 표기로 보는 것이다.

# 會 費 及 贊 助 金

## 期別分擔金

## 三士체전 贊助金(各 期生會)

2002. 6. 30. 기준

單位 : 만원

| 期數 | 7次年度<br>('99. 7. 1. ~ '00. 6. 30.) |       |     | 8次年度<br>('00. 7. 1. ~ '01. 6. 30.) |     |     | 9次年度<br>('01. 7. 1. ~ '02. 6. 30.) |          |          | 未納計 |
|----|------------------------------------|-------|-----|------------------------------------|-----|-----|------------------------------------|----------|----------|-----|
|    | 計劃                                 | 納付    | 未納  | 計劃                                 | 納付  | 未納  | 計劃                                 | 納付       | 備考       |     |
| 1  | 40                                 | 40    | -   | 40                                 | 40  | -   |                                    |          |          |     |
| 2  | 40                                 | 40    | -   | 40                                 | 40  | -   | 40                                 | 40       |          |     |
| 3  | 40                                 | 40    | -   | 40                                 | 40  | -   | 40                                 | 40       |          |     |
| 4  | 40                                 | 40    | -   | 40                                 | 40  | -   | 40                                 | 40       |          |     |
| 5  | 40                                 | 40    | -   | 40                                 | 40  | -   | 40                                 | 40       |          |     |
| 6  | 40                                 | 40    | -   | 40                                 | 40  | -   | 40                                 | 40       |          |     |
| 7  | 60                                 | 60    | -   | 40                                 | 40  | -   | 40                                 | 40       |          |     |
| 8  | 60                                 | 60    | -   | 60                                 | 60  | -   | 40                                 | 40       |          |     |
| 9  | 60                                 | 60    | -   | 60                                 | 60  | -   | 60                                 | 60       |          |     |
| 10 | 60                                 | 60    | -   | 60                                 | 60  | -   | 60                                 | 60       |          |     |
| 11 | 60                                 | 60    | -   | 60                                 | 60  | -   | 60                                 | 60       |          |     |
| 12 | 60                                 | 60    | -   | 60                                 | 60  | -   | 60                                 | 60       |          |     |
| 13 | 60                                 | 60    | -   | 60                                 | 60  | -   | 60                                 | 60       |          |     |
| 14 | 60                                 | 60    | -   | 60                                 | 60  | -   | 60                                 | 60       |          |     |
| 15 | 60                                 | 60    | -   | 60                                 | 60  | -   | 60                                 | 60       |          |     |
| 16 | 60                                 | 60    | -   | 60                                 | 60  | -   | 60                                 | 60       |          |     |
| 17 | 60                                 | 50    | 10  | 60                                 | 60  | -   | 60                                 | 130      | 7. 8. 9차 |     |
| 18 | 60                                 | 60    | -   | 60                                 | 20  | 40  | 60                                 | 100      | 8. 9차    |     |
| 19 | 60                                 | 60    | -   | 60                                 | 60  | -   | 60                                 | 60       |          |     |
| 20 | 60                                 |       | 60  | 60                                 | 60  | 60  | 120                                | 8. 9차    | 60       |     |
| 21 | 60                                 |       | 60  | 60                                 | 60  | 60  | 60                                 | 9차       | 120      |     |
| 22 | 60                                 |       | 60  | 60                                 | 60  | 60  | 60                                 | 9차       | 120      |     |
| 23 | 60                                 |       | 60  | 60                                 | 60  | 60  | 180                                | 7. 8. 9차 |          |     |
| 24 | 60                                 |       | 60  | 60                                 | 60  | 60  | 60                                 |          | 180      |     |
| 25 | 60                                 |       | 60  | 60                                 | 60  | 60  | 120                                | 7. 8차    | 60       |     |
| 26 | 60                                 |       | 60  | 60                                 | 60  | 60  | 180                                | 7. 8. 9차 |          |     |
| 27 |                                    |       |     | 60                                 | 60  | -   | 60                                 | 60       |          |     |
| 28 |                                    |       |     | 60                                 | 60  | 60  | 120                                | 8. 9차    |          |     |
| 29 |                                    |       |     |                                    |     |     | 60                                 | 60       |          |     |
| 計  | 1,440                              | 1,010 | 430 | 1,540                              | 960 | 580 | 1,540                              | 2,010    |          | 540 |

各 期生會에서 三士체전을 위해 직접 母校에 贊助金を 지원한 것과 총동창회를 통해 傳達한 內容입니다.

단위 : 만원

| 기 수 | 금 액 | 비 고 | 기 수 | 금 액 | 비 고 |
|-----|-----|-----|-----|-----|-----|
| 1기  | 50  | 홍우회 | 18기 | 100 | 흑매회 |
| 2기  | 100 | 이공회 | 19기 | 300 | 태성회 |
| 3기  | 100 | 삼정회 | 20기 | 100 | 침익회 |
| 4기  | 100 | 사봉회 | 21기 | 100 | 여명회 |
| 4기  | 100 | 익명  | 21기 | 100 | 배창식 |
| 4기  | 100 | 익명  | 22기 | 100 | 쌍매회 |
| 5기  | 50  | 신성회 | 23기 | 100 | 총매회 |
| 6기  | 100 | 일성회 | 24기 | 150 | 웅비회 |
| 7기  | 100 | 칠성회 | 25기 | 100 | 취운회 |
| 8기  | 100 | 팔진회 | 27기 | 100 | 석로회 |
| 9기  | 100 | 은하회 | 28기 | 150 | 애재회 |
| 9기  | 300 | 김상태 | 29기 | 200 | 취조회 |
| 10기 | 100 | 십철회 | 30기 | 100 | 창로회 |
| 11기 | 100 | 비성회 | 31기 | 100 | 한돌회 |
| 12기 | 100 | 은성회 | 32기 | 100 | 벽공회 |
| 14기 | 100 | 총조회 | 33기 | 150 | 비호회 |
| 15기 | 100 | 성익회 | 34기 | 100 | 한울회 |
| 15기 | 100 | 최용한 | 36기 | 100 | 한얼회 |
| 16기 | 100 | 승운회 | 38기 | 150 | 침송회 |
| 16기 | 30  | 이재기 | 49기 | 100 | 한음회 |
| 17기 | 100 | 봉우회 |     |     |     |

## 贊 助 金

1. 9期士官 贊助 : 총 3,500만원

單位 : 만원

| 姓 名 | 金 額 | 姓 名 | 金 額 | 姓 名           | 金 額 |
|-----|-----|-----|-----|---------------|-----|
| 姜敬秀 | 500 | 朴鍾權 | 100 | 李俊昊           | 100 |
| 高恩澤 | 50  | 白奉鍾 | 100 | 李漢浩           | 30  |
| 高仁珪 | 100 | 徐哲洙 | 100 | 林柄善           | 100 |
| 權赫達 | 100 | 愼都範 | 100 | 鄭忍鎬           | 100 |
| 金光淳 | 500 | 尹成鎭 | 50  | 千王鳳           | 50  |
| 金明珠 | 100 | 李康洪 | 100 | 崔一永           | 100 |
| 金相泰 | 500 | 李基鳳 | 50  | 韓光熙           | 200 |
| 金鍾會 | 20  | 李煥洛 | 100 | 金貞玉(故 이종만 부인) | 10  |
| 文英福 | 20  | 李鎔世 | 50  | 朴惠玉(故 이영화 부인) | 10  |
| 閔大植 | 50  | 李宰律 | 100 | 李順鶴(故 박기순 부인) | 10  |

2. 會員 贊助 : 210만원

單位 : 만원

| 期 | 姓 名 | 金 額 | 期  | 姓 名 | 金 額 | 期  | 姓 名 | 金 額 |
|---|-----|-----|----|-----|-----|----|-----|-----|
|   |     |     | 4  | 徐東烈 | 10  | 15 | 林平圭 | 10  |
| 2 | 金相台 | 100 | 5  | 朴鎔泰 | 10  | 22 | 白桂根 | 10  |
| 2 | 朴商俊 | 10  | 7  | 金楨東 | 3   | 24 | 白閔鎬 | 10  |
| 3 | 金震燮 | 15  | 13 | 金俊彦 | 10  | 25 | 高德天 | 10  |
| 4 | 金義經 | 2   | 14 | 禹義人 | 10  |    |     |     |

3. 一般 贊助 : 270만원

單位 : 만원

| 姓 名    | 金 額 | 備 考 | 姓 名      | 金 額 | 備 考   |
|--------|-----|-----|----------|-----|-------|
| 空軍參謀總長 | 200 | 李億秀 | 士官候補將校會長 | 10  |       |
| 보라매會長  | 10  |     | 在鄉軍人會長   | 50  | 花環 1점 |

\* 24호 회보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다시 게재합니다.

### 회 비 납 입 안내

회원회비 : 기본회비(평생회비)  
· 10만원(1회 납입으로 종료)

기별분담금(임원회비) : 9차 정기총회 의결  
· 회기(2002. 7. 1. ~ 2003. 6. 30.)  
· 2기 ~ 9기 : 기별 40만원  
· 10기 ~ 30기 : 기별 60만원

찬조금/광고협조  
· 누구나 찬조 및 광고

안 내  
· 한빛은행 :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송금시 유의사항  
· 입금시 기수, 성명, 납입구분(평생회비/기별/임원회비) 명시

총동창회 연락처  
· 전화 : 02-823-1091  
· 팩스 : 02-823-1092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58-1  
· Homepage : [www.afa.ac.kr](http://www.afa.ac.kr)  
· E-Mail : [airfa04@hanmir.com](mailto:airfa04@hanmir.com)





ISO 9001 인증획득

# 신념을 지켜가는 기업

진정 믿기 있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설비와 기술, 최고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금속 가공 OIL 및 CHEMICAL 분야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한국 하우톤. 최요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념을 가진 기업, 외길을 지켜가는 고집 있는 기업, 한국 하우톤이 만들어 갑니다.



### 주요생산제품

- 절삭유, 방청제, 압연유
  - 소성가공유, 산선유, 합성 윤활유
  - 열처리유, 산업용 윤활유, 세척제
  - 특수 및 산업용 그리스
  - 표면 처리제 및 금속코팅/도금
  - 특수 수지 및 전기 절연 바니쉬
  - 기타 관련 케미컬
- Metal Cutting Fluids, Rust Preventives, Steel and Aluminium Rolling Oils
  - Metal Forming Fluids, Drawing Oils, Synthetic Lubricants
  - Heat Treatment Oils, Industrial Lubricant Fluids, Cleaners
  - Grease Products
  - Metal Surface Treatments
  - Waterborne Coats/Paints, Specialty Resins
  - Electrical Insulating Varnish
  - Other Related Chemicals



株式 韓國 하우톤 會社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9층 • TEL. 02-3284-3300 • FAX. 02-3284-3333~5  
아산공장: TEL. 041-541-8384~6 FAX. 041-541-8387 / 온산공장: TEL. 052-238-7431~4 FAX. 052-238-7783  
e-mail: houghton@houghton.co.kr / web-site: http://www.houghton.co.kr